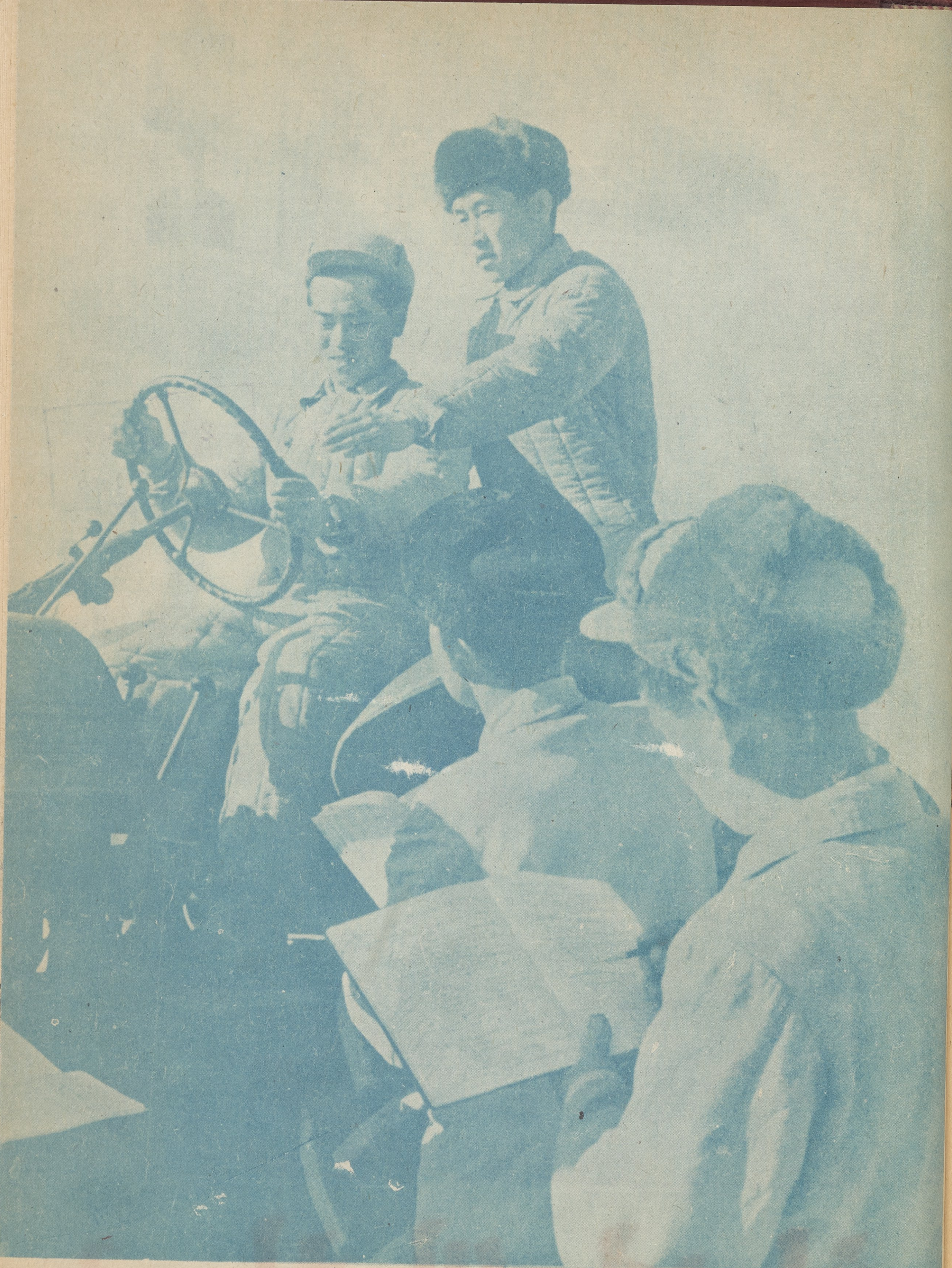

2 - SEP 27
Copy 1962

청년생활

3

1962



숙천군 농기계 작업소 9 중대장 김 명덕 동무는 뜨락또르 기술 크루쇼크 성원들에게 그의 운전법을 배워 주고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962. 3 루계(151)

차 례

표지 1면 ; 《조선 로동당의 딸, 청년 녀성 영웅호》 선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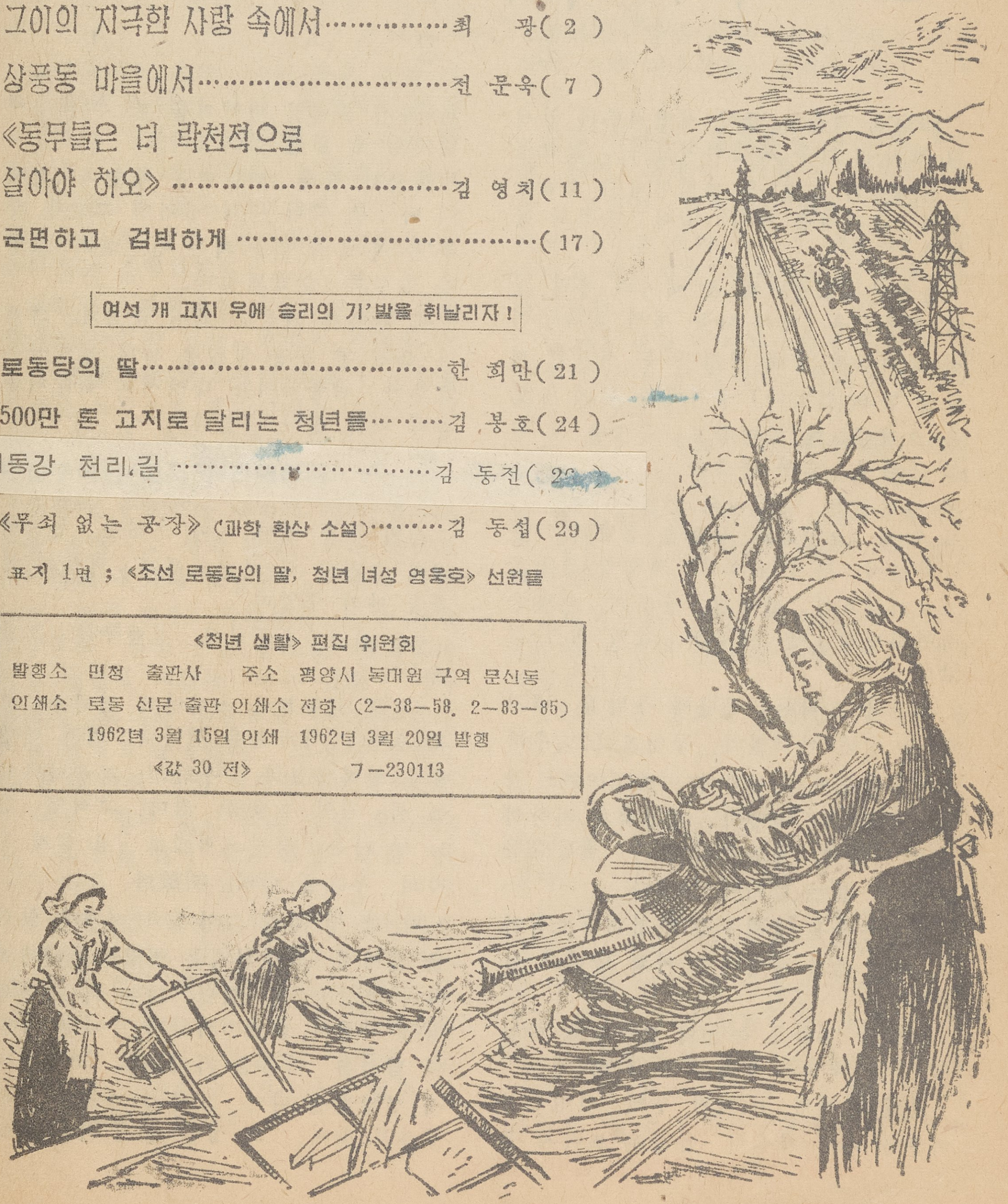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전화 (2—38—58. 2—83—85)

1962년 3월 15일 인쇄 1962년 3월 20일 발행

《값 30 전》 7—230113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그이의 지극한 사랑속에서

최 광

1934년 겨울에 들어 서면서부터 일제의 발악은 더욱 혹심하여졌다. 놈들은 소위 《동기 토벌》을 떠벌이면서 요영구 유격 근거지를 매일 같이 공격해 왔었다.

놈들이 《토벌》 해 올 때마다 우리 청년 의용군은 (이때 나는 청년 의용군에서 소대장과 중대 공청 지부 서기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유격대와 함께 놈들을 요격했으며 인민들도 목숨을 내 걸고 우리를 도와 나섰다. 요영구의 전체 인민들은 유격대와 일심 동체가 되여 일제 《토벌대》 놈들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자기 손으로 쟁취한 정권을 고수하였으며 단결된 불패의 력량을 시위하면서 한 걸음도 물러 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곤난에 부닥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였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무기와 탄약이 부족했으며 근거지 내에는 식량이 결핍되기 시작하였고 더우기 인민들의 옷과 신발들은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일제놈들은 유격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모두 굶겨 죽인다고 미쳐 날뛰고 있었다.

요영구 부락은 놈들의 습격으로 매일과 같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불살라 버린 재'더미 우에 인민들이 기둥을 다시 세우면 놈들은 또다시 몰려 와서 불태워 버리기를 몇 차례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놈들이 물러 가면 이를 악물고 산에서 나무를 찍어 내려 연기에 그슬린 주추'돌 우에 초막을 치는 인민들의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웠다.

이 해따라 겨울은 몹시 추웠다. 그러나 해진 홑 옷을 입었을 망정 인민들은 눈보라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참아 나갔다.

이 무렵에 북만 원정에서 돌아 오신 김 일성 동지께서 요영구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이 소식은 삽시에 퍼져 근거지 내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었다.

《김 일성 장군님이 요영구에 오셨대!》.

《인젠 왜놈들이 녹아나게 됐어!》 하고 요영구 사람들은 저마다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였다.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새 힘이 용솟음 쳤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영광스럽게도 김 일성 동지의 부름을 받게 되였다.

약 반 년 전에 그이께서 태평구 인민들 앞에서 연설하시는 것을 멀리에서 바라 보았을 뿐이였던 나는 이 전달을 받자 가슴이 두근거리였다. 나는 흥분에 넘치는 마음을 가까스로 억누르면서 전령병을 따라 그이가 계시는 귀틀집으로 갔다. 그 집은 청년 의용군 병실과 왕청 제 4 중대 병실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방에 들어 서자 김 일성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나시며 힘 있게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였다.

《명석(당시 나의 이름) 동무! 그동안 얼마나 수고 했소?》하고 치하해 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얼굴을 붉히였다.

그이께서는 손수 나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나서 나의 옷자락을 만져 보시면서 《몹시 상했구만, 군복도 다 해지구, 우선 군복들을 해결해야 하겠소. 동무들은 물론 인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소?》이렇게 근심어린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부하를 사랑하시는 마음, 인민을 사랑하시는 그이의 마음,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시는 그이의 지극한 사랑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 우리는 목전에 부닥친 적과의 전투에만 급급하던 나머지 자기 손으로 엄동 설한에도 의복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우기 나는 중대 공청 지부 서기로서 응당 청년 의용군의 일상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적었다. 이는 단순히 의복 문제가 아니라 대원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정치적 문제였다. 그것은 놈들이 그 당시 통치 구역 인민들에게 《공산군은 매일 같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고 악선전을 들이 대고 있던 조건 하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김 일성 동지께서는 북만 원정의 길에서 앓으신 병색이 채가시지 않은 괴로운 몸도 돌보지 않으시고 주야로 요영구의 모든 실정을 살피기에 분망하시였으며 첩첩히 쌓인 곤난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셨다.

그이께서는 나에게 청년 의용군 내 공청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그리고 무기와 탄약의 보유 정형과 청년들의 교양 사업이며 조직 및 대렬 장성 사업, 그리고 사업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 없이 료해하신 후 실지 공청 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였다.

담화가 끝난 뒤에 그이께서는 나와 함께 청년 의용군의 병실을 돌아 보시였다.

청년 의용군 대원들은 김 일성 동지를 끓어 넘치는 기쁨으로 맞이하였다. 그이는 대원들을 돌아 보시다가 제일 어리고 키가 작아서 《꼬마》 대원이라고 불리우던 동무한테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꼬마》 대원은 라자구에서 아동단 생활을 하다가 갓 입대한 중대에서 제일 어린 동무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 《꼬마》대원의 가정 사정에 대하여 물으신 후 총을 쥐고 싸울 수 있는가고 하시자 그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힘 있게 대답하였다.

그이께서는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꼬마》 대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장하오! 앞으로 훌륭한 전사로 될 수 있소!》.

그이께서는 《꼬마》 대원을 찬찬히 바라보시다가 《이 동무에게 군복을 몸에 맞게 해 주어야겠소!》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사실 《꼬마》 대원이 입은 군복은 키가 큰 장정이 입어도 남을 만큼 컸다. 바지'가랑이와 소매를 여러 겹 걸어 올려 입고 있어서 그 볼품이란 말할 것도 없었다. 만일 우리가 그이의 백 분의 일만큼이라도 대원들의

일상 생활에 관심을 돌렸더라면 《때마》 대원의 옷쯤은 몸에 맞게 줄여 줄수도 있었을 것이요 달리 변통할 수도 있었을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대원들의 식사 조건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보살피셨고 식량 사정에 대하여서도 물으셨다. 당시 우리는 아이들 손'바닥만큼한 옥수수떡 두개로 하루 끼니를 에우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는 나의 보고를 들으시자 청년 의용군은 근거지를 보위하는 한편 여가를 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스스로 자기 식량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과 나아가서는 근거지 인민들의 농사'일을 도와 주어야 하겠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한 점을 뚫고 그와 련관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이 료해하시는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 의용군의 생활 형편을 통하여 요영구 인민들의 생활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특히 군대가 자기들과 혈연적 련계를 맺고 있는 인민들을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 의도하시는만큼 우리들은 인민들과의 사업을 잘 하지 못했다.

당시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인민을 위하여 몸 바친다고 하면서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진정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김 일성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짬을 내여 인민들의 농사'일을 방조하거나 전투의 여가에 집을 지어줄수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나는 그때 그이께서 얼마나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절실히 느꼈고 그이의 모범따라 자기 자신을 더욱 인민을 위한 혁명가 답게 수양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 김 일성 동지께서는 삼차구 성시 진공 전투를 직접 계획하시였다.

당시 우리 중대는 매일처럼 달려 드는 놈들의 《동기 토벌》을 물리치는 방어 전투에만 몰두하느라고 삼차구 같은 큰 성시를 감히 진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전술적 원칙을 유격 전술에 솜씨 있게 적용하시고 이 전투를 계획하셨던 것이다.

나는 그때 김 일성 동지를 호위할 임무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이 전투 계획을 짜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전투를 앞둔 어느 날이였다.

그날도 우리들은 유격 근거지에 기여든 적 《토벌대》 놈들을 격퇴하고 요영구 남산에서 숙영하고 있었다. 련일 계속되는 전투에서 지친 대원들은 곧 잠이 들었다. 나는 호위병들과 같이 남산 밑에 있는 빈 집에 불을 지피고 그이께서 주무실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이는 지도를 펼치시고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좀체로 자리에 누우려 하시지 않았다. 밖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람에 문풍지가 떨고 방안의 등잔'불은 까물거렸다. 그이께서는 아직도 완쾌되지 않은 몸이시면서도 조금도 피로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냥 전투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보초 교대 시간이 되여 자는 동무를 깨워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 나면서 내가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을 비로소 알아 보신 그이께서는 《아니, 명석 동문 왜 아직 안자고 있소! 어서 좀 누우라구!》라고 말씀하셨다.

《괜찮습니다. 사령관 동지께서 어서 주무시십시오》 하고 나는 그이께서 주무실 것을 권했다. 그러나 그이는 오히려 빙긋이 웃으시며 《내 걱정은 말고 어서 자라구》라고 거듭 말씀하시며 보초를 교대시키고 나서 다시 지도와 마주 앉으시는 것이였다.

인민을 위하여, 대원들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몸은 돌보지도 않으시고 깊

은 밤에도 계속 작전 계획에 여념이 없으신 그이의 모습은 그지 없이 숭고하였다.

나는 김 일성 동지의 전사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우리는 그이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유격대를 협조하여 삼차구로 진공하게 되였다.

삼차구 진공 전투는 승리적으로 끝났다. 이 전투에서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약간의 무기와 수 많은 천을 로획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대원들의 군복은 물론 근거지 인민들에게도 누구나 한 벌씩 옷을 해 입힐 수 있게 되였다. 우리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때마》 대원도 제몸에 알맞는 옷이 차례져서 기뻐하였고 우리들은 모두가 겨울의 맵짠 추위 속에서도 두려울 것 없이 더욱 활기띤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이 일제히 새 군복을 갈아 입은 그 이튿날이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청년 의용군 간부들을 부르시였다. 우리는 새로운 전투 임무라도 주시는가 하여 가벼운 걸음으로 그이가 계시는 곳에 모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 일성 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옷을 해 입고 남은 천에 대한 처리 방도를 의논하시는 것이였다.

《군복을 해 입고 남은 천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동무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 보오!》

우리는 애당초 생각조차 못 한 그이의 물음에 당황해졌다. 우리는 남은 천을 가지고 차후에 다시 군복이나 해 입으면 되겠거니 생각하고만 있었을 뿐이 였다.

그러므로 매우 심중히 물으시는 그이의 말씀에 누구 하나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우리를 둘러 보시다가 《남은 천을 적 통치 구역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소.》 라고 제기하시는 것이였다.

우리들은 이구 동성으로 그이의 의견에 찬성했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대답에 만족해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일제 놈들 때문에 어디에서나 헐벗고 굶주리고 있소. 우리는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우려는 결심을 가지고 손에 무기를 든 인민의 군대요. 그러므로 인민들이 불행과 고초를 겪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불행과 고초로 되오.

그러기에 인민들의 기쁨과 불행은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불행으로 생각해야 하오. 우리는 자나 깨나 이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되며 또 잊을 수도 없소.

그것은 비단 우리 유격 구역 내 인민들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적 통치 구역 내 인민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천이 남았소, 이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옷 한 벌씩을 더 해 입을 수도 있소, 그러나 동무들, 우리가 진정 인민의 군대라면 그 천을 남겨 두는 것보다 이 엄동 설한에 떨고 있는 적 통치 구역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옷을 해 입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소!…

인민에 대한 깊고도 넓은 김 일성 동지의 사랑과 배려에 우리는 한동안 머리를 숙인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란 이 말의 참된 뜻을 알고 싸우는 공산주의자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새삼스럽게 자신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이의 말씀 대로 곧 집행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그 임무를 우리 청년 의용군에 맡겨 주시였다.

우리들은 밤마다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적 통치 구역 내에 천을 지고 들어가 인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나

누어 주었다. 아무리 춥고 길이 험하고 경계가 심하여도 그 때마다 그이의 뜨거운 사랑을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다.

내가 삼차구 서쪽 마을에 찾아 갔을 때였다. 부락에서 외따로 떨어진 어느 농가에 가서 가만히 문을 두드리자 《거누구요…》하는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연 주인은 유격대 군복 차림을 한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어서 들어 오라고 손을 잡아 끌었다. 내가 집안으로 들어 가자 그는 곧 밖에 나와서 주위를 살핀 후에 따라 들어 왔다.

나는 방안에서 그 집의 기막힌 살림살이를 돌아 보았다. 집안에는 가족들도 있었는데 옷 한 벌 변변히 걸친 사람이 없었다. 내가 옷감을 그들 앞에 내 놓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해 하였다.

나는 주인에게 말하였다.

…김 일성 장군님께서 저를 보내기에 댁에 찾아 왔습니다. 이 옷감들은 이번 삼차구 전투에서 빼앗은 것인데 장군님께서는 왜놈들의 시달림 속에서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집 주인과 가족들은 너무도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일생 동안 베옷 한 벌 제대로 입어 보지 못했다는 집 주인은 그저 꿈 같기만 하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이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몇번이고 말하는 것이였다.

나는 그들 앞에서 장군님이 이제 왜놈들을 쳐 물리치고 조선을 해방시키는 날에는 지금처럼 베옷이나 무명옷이 아니라 비단 옷을 해 입게 될 것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고 미래의 승리에 대한 희망과 신심이 떠돌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을 나오면서 주인에게 놈들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집안 식구가 한꺼번에 옷을 해 입을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 벌씩 지어 입으라고 타일러 주었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당합니다. 우리 같은 가난뱅이 농군의 살림살이를 돌보아 주시는 장군님의 은덕을 갚기 위해서 내 힘이 자라는 대로 군대 어른들을 돕겠소다.》

나는 지금도 《조선 사람으로서 떳떳이 살겠다》고 하면서 감격 어린 눈매로 나를 쳐다 보던 그 농민의 얼굴이 선히 떠 오른다. 그리고 래일에 대한 희망과 김 일성 장군에 대한 다함 없는 신뢰가 어려 있던 그의 눈매를 잊을 수 없다.

그는 김 일성 장군께서 반드시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들이 행복하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 사회를 건설하시리라는 것을 확고히 믿으면서 나를 바래 주었었다.

이것이 어찌 그 농민 한 사람만의 희망이며 념원이였으랴!

김 일성 장군의 따뜻한 손'길이 뻗치고 그이의 뜨거운 배려가 돌려진 곳 마다에서 인민들은 한결 같이 행복한 앞날을 내다 보면서 항일 유격대를 성심 성의로 도와 주었었다.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은 오늘 우리 조국 땅에 사회주의 락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구현되고 있다. 오늘 인민들은 명랑하고도 슬기롭게 일하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있다.

나는 우리 인민들을 보다 더 풍족하고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어느 한 공장으로부터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용광로 앞에 서 있는 용해공으로부터 한 방직공에 이르기까지 날날이 돌보시면서 그들을 어버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라의 살림을 꾸려 나가시는 김 일성 동지의 모습을 뵈올 때마다 새삼스레 지난 날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돌리시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절절한 심정으로 회상하게 된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의 이러한 배려, 그렇듯 크낙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있으며 보다 더 번영할 래일의 행복을 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상풍동 마을에서

전 문 욱

김 일성 사장 동지께서 유격대의 일부 대오를 친솔하시고 장백현 17도구 상풍동 마을에 들리신 것은 1936년 12월 말 경 함박눈이 내린 어느 날 밤이였다.

사장 동지께서 파견하신 정치 공작원들이 장백 지구에 나와 활동한 때 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환희와 흥분으로 나날을 보냈다. 주경동에도 조국 광복회 지부가 조직되였으며 반일 구국 청년회와 아동단이 조직되였다. 반일 구국 청년회 주경동 지부의 상풍동 분조 책임을 진 나는 이 날 밤 분조원들을 만나고 늦게 집에 돌아 왔던만큼 자리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한 밤'중에 잠에서 깨여 났다. 《사각사각 빠지직빠지직…》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였다. 수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밟고 가까이 접근해 오는 소리였다.

(웬 사람들인가?)

나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그리고 뛰여 나갔다. 어느새 깨여 났는지 수 많은 마을 사람들도 달려 나왔다.

정연하게 늘어 선 긴 대렬이 밝은 달'빛 아래 환히 보였다. 그 수는 200 명이 넘는 것 같았다.

조선 인민 혁명군이였다. 얼마나 그리며 기다리던 우리의 군대인가!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유격대원들을 얼싸 안았고 서로서로 두 손을 마주 잡고 힘껏 흔들었다.

우리들은 사장 동지의 친솔 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이 압록강 연안에 진출한 후 장백현 대덕수와 소덕수에서 그리고 반절구와 이도강 전투들에서 달성한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이들을 만나 뵈일 날을 얼마나 마음조이며 기다렸던가!

유격대원들과 만난 우리들의 흥분과 감격은 비할 바 없이 컸다.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이끄는 손'길에 안내되여 유격대원들은 마을 농가들에 분숙하게 되였다. 이 날 밤 우리 청년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이 울렁거리여 꼬박 뜬 눈으로 새웠다.

(김 일성 장군님도 오셨겠지…
날이 밝으면 그이를 만나 뵈려 가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 날이 밝기만 기다렸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유격대원들은 어느새 일어났는지 마당을 쓸며 넘어진 바자도 손질하면서 분주히 돌아 갔다.

나는 우리 집 뜰악을 쓰는 한 유격대원 옆으로 다가 갔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비'자루를 빼앗아 쥐고는 슬그머니 어느 부대냐고 물어 보았다. 그 대원은 웃으면서 그저 조선 인민 혁명군이라고 하면서 어느 부대라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일성 장군님이 오셨지요?》하도 내가 끈끈히 캐묻자 그제사 그 대원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김 일성 장군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입과 입을 거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삽시간에 쫙 퍼지였다.

그러자 로인들이나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이른 새벽부터 밖에 나와 서성거리였다. 마을의 어린이들은 홑바지 저고리를 입고 짚신에 벌겋게 언 발을 해가지고 골목 길을 뛰여 다니며 부산을 피웠다. 실로 모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여 있였다.

그런데 이 날 아침 우리는 뜻 밖에도 김 일성 사장님께서 반일 구국 청년 회원들을 부르신다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그처럼 마음 속에 흠모하여 오던 그이를 이제야 만나게 되누나!)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막 울렁거렸다.

그러나 한편 그이 앞에 가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은근히 근심도 생겼다.

(아마 김 일성 장군님은 나이도 지긋하고 엄엄한 분이시겠지?)

그이의 모습에 대하여 나는 나 대로 이렇게 상상해 보았다.

우리는 그이가 계시는 집으로 다가갔다.

한 대원이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리자 건장한 체구의 젊은 지휘관이 문을 열고 《동무들 어서 들어 오시오!》하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 분이 김 일성 장군이시구나!) 나이도 지긋하고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일 것이라고 상상하던 것과는 달리 얼핏 보기에 25 세 내외의 젊은 장군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외투를 벗어 옆에 놓고 앉으시며 우리들에게 편히 앉으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구름로점을 깐 방안에 그이를 중심으로 주른히 앉았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으실가?)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나는 필경 상풍동 마을에서의 반일 구국 청년회 조직 사업 정형에 대하여 물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외에도 그이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되여 장백에 오게 되였는가?

—전에 살던 고장은 어디인가?

—식구는 몇인가?

—살림 형편은 어떤가?를 차근차근 물으시였다.

사장 동지는 우리들이 자기의 속을 툭 털어 놓을 수 있도록 어쩌나 허심하게 대해 주시였던지 처음에는 그이 앞에서 대답도 제대로 못 하던 일부 동무들도 몇 마디 말씀 드린 뒤부터는 제각기 신이 나서 자기들이 고초를 겪은 가지 가지의 사실들과 특히 지주의 가혹한 착취상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며 말하는 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고통을 뼈아프게 느끼시는듯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깊이 들으시였다.

나는 지난 시기 내가 보고 체험한 일들 중에서 일제의 주구인 악질 지주와 관리들을 반대하여 싸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던 장백현 반절구에는 악귀 같은 지주 놈이 있었다.

이 지주 놈은 경찰들을 등에 업고 피땀으로 개간한 농민들의 땅을 사기와 협잡으로 모조리 빼앗고 온갖 구실을 붙여 농민들의 쌀'독에서 마지막 한 되의 쌀까지 다 긁어 냈었다.

격분한 농민들은 토벽으로 둘러 싼 그 놈의 집에 달려 들어 지주놈을 끌어 내 왔다.

그리고 그 놈을 땅'바닥에 눕혀 도끼모태로 삼아 그 우에다 장작 개비를 놓고 도끼로 그것을 빠갰다. 시퍼런 도끼날이 내리 찍힐 때마다 지주 놈은 금시 숨이 지는듯 한 비명을 지르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 달라고 두 손을 싹싹 비볐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이 지주에게는 《도끼 모태》라는 별명이 붙게 되였다.

나는 상풍동 마을에 오기 전에 함남 대진평에서 겪은 이야기도 하였다.

두메 산'골 대진평 마을에는 가끔 시꺼먼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산림 간수 놈이 와서 이것 저것 트집을 걸며 사람

들을 함부로 때리고 벌금을 받아 내군하였다.

한 번은 농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하여 로인들에게 반말질을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잡아 간다고 땅땅 울러댔다.

이 광경을 지켜 보고 있던 마을 젊은이들은 그 놈의 거동을 그냥 볼 수 없었다. 격분한 마을 젊은이들과 함께 나는 그 놈을 붙잡아서 집채 같은 진대나무를 지레'대로 뜨고 그 밑에 집어 넣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자랑 삼아 말하면서 사장 동지가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 놈들을 제일 미워하실 터이니 응당 나의 이 행동을 치하하여 주시리라고 은근히 생각하였다.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신 사장 동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동무들이 일제와 그 주구 놈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기세가 높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동무들이 말한 바와 같이 농민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지은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은 지주 놈들이다. 일제에게 아부하는 지주를 반대하여 응당 싸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주 놈들의 뒤에 누가 있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 뒤에는 우리의 가장 큰 원쑤인 왜놈들이 있다. 우선 왜놈들을 때려 부셔야 한다.

그런데 혁명이란 주먹다짐으로써는 수행할 수 없다.

어느 한 악질적인 지주를 도끼 모태로 만들어 혼쌀을 내웠다 하여 악착한 지주의 착취적 본성을 떼 버릴 수는 없으며 어느 산림 간수를 진대나무 밑에 밀어 넣었다 하여 우리들의 처지가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머리 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포악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장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를 돌아다 보시고는 웃으시며 그 후 《도끼 모태》라는 지주가 어떻게 되였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였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못 하고 주저하였다. 그것은 그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은 다음 우리의 처지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일제의 폭압과 행패가 더 심하여진 것이 틀림 없었기 때문이였다.

《도끼 모태》는 일제 관헌에 의지하여 우리를 보복하였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고장을 떠났다.

우리도 바로 그 때 밤'중에 세간살이를 꾸려 지고 함남 대진평이라는 깊은 산'골로 옮겨 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대진평에서도 산림 간수를 진대나무 밑에 밀어 넣은 후부터 일제의 경계가 심하여 인민들이 다시 그 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것이다.

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장 동지는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하시였다.

…보라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놈들과 싸우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원쑤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이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것을 무서워 한다.

광범한 인민 대중이 굳게 뭉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조선 인민 혁명군이 포악한 일제를 무장으로 때려 부시고 또 광범한 조 중 인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다면 놈들의 멸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지금 쏘련의 위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혁명 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 각층 인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조직에 묶어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 동지의 어조에는 혁명적 열정과 확고한 신념이 불타

고 있었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 동원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동무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를 잘 리해하여야 한다.

아는 것은 힘이다. …동무들은 조선에서 일어나는 로동자, 농민의 투쟁과 청년 학생 운동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중국 혁명, 특히 쏘련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한다. 그저 군중을 조직 동원시키고 단결시켜야 한다는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도를 가지지 못 하면 인민 대중을 해설 설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제를 반대하여 나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이는 우리들에게 학습을 많이 해서 지식을 넓힐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상 아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 먼저 한 사람이 알게 되면 그것을 발표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호상 토론에 붙이면 지식이 깊어 지고 확고해 진다.…

사장 동지는 우리들에게 등사한 《3.1 월간》 (잡지)을 주시고 매 개인에게 혁명 가요집 한 권씩을 나누어 주신 다음 국내외 정세와 조선 인민 혁명군의 사명, 그리고 금후 청년들이 할바 과업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조선 혁명의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동력과 투쟁 대상, 그리고 투쟁 방법에 대한 어려운 리론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것이였으나 책에 씌인 것처럼 힘들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았다.

우리들의 의식 수준에 맞추어 쉬운말로 풀어서 해설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나는 지난 날 사업에서 무엇이 잘못 되였는가를 스스로 깊이 뉘우칠 수 있었다.

궁벽한 벽촌에서 나서 자라고 어려운 생활에 쪼들리면서 우리는 일제와 지주놈이 미운 줄은 알았어도 아직 혁명적인 리론과 투쟁 방법을 알지 못 하였다.

우리는 사장 동지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눈이 틔우고 앞이 훤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날 그이께서는 조국 광복회 회원들을 만나 장시간 담화하시였다.

담화가 끝난 후 이어 유격대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즐거운 한 때를 보내였다.

유격대원들은 노래도 부르고 노래와 손'벽 장단에 맞추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으며 하모니카 합주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의회 주권가》, 《녀성 해방가》 등 여러 가지 혁명 가요도 배워 주었다.

이 날 저녁 김 일성 사장 동지께서는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면서 대오를 거느리고 우리 마을을 떠나시였다.

우리는 그이를 만나 뵙고 나서야 이때까지 전설로 들려 오던 《하늘이 낸 장군》, 《산을 주름 잡아 다니시는 장군》이 바로 진정 착취 받고 억압 받는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이며 조선 인민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내다 보시는 영명한 장군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사장 동지를 만나 뵈온 사람들은 모두다 그이의 깊고 넓은 정치적 식견에 감탄 하였다.

그러기에 상풍동 마을 전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선 사람도 인제는 살' 길을 만났다!》, 《김 일성 장군이 장백에 나오셨으니 왜놈의 세상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다녀가신 이후 반일 조직에 더욱 굳게 뭉치였으며 유격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이의 가르침대로 반일 조직에 대중을 묶어 세우며 유격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자기의 심혈을 다 기울이였다. 그리고 조직을 통하여 수 많은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장군님이 다녀 가신 그 길을 밟으며 유격대를 찾아 떠났다. 1937년 4월에는 나도 우리 마을의 다른 몇몇 동무들과 함께 조선 인민 혁명군에 입대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의 길에 나섰던 것이다.



《동무들은 더 락천적으로 살아야 하오》

김 영 치

1958년 5월 7일—나는 일생을 두고 이 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그 날 따라 일기는 유난히도 맑은 날씨였다.

나는 여늬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몰고 뒤'산으로 방목을 하러 떠났었다.

그러나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여 일이 손에 잘 붙지 않았다.

그것은 이 날 수상 동지께서 쌍룡 농업 협동조합에 오셨다가 우리 영예 군인 작업소에도 들리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까이는 대할 수 없을망정 먼 곳에서라도 그이를 한 번 뵈왔으면 하는 생각에 나는 줄곧 산 밑 신작로에만 정신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누군지 나에게로 뛰여 오면서 빨리 작업소에 내려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였다.

나는 어찌나 반가왔던지 한달음으로 작업소 마당에 당도하였다.

거기에는 벌써 우리 영예군인들이 몰려 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도 거의 작업 현장에서 달려 온 참이여서 모두 작업복 차림에다 땀투성이가 된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어떤 동무들은 새 옷을 갈아 입기 위해서 지팽이에 의지하여 급히 집으로 가는가 하면 또 어떤 동무들은 옷을 갈아 입는 사이에라도 수상 동지께서 오시지나 않을가 하여 오가지도 못 하고 마당 복판에서 서성거리고 있기도 하였다.

나의 가슴은 벅차 오르기만 했다.

나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수상 동지께서 오실 신작로만 지켜 보고 있었다.

이윽해서 신작로에는 몇 대의 승용차가 나타났다.

우리들이 목청껏 부르는 만세 소리와 함께 열렬한 박수 소리가 한시에 일어났다.

이윽고 우리 앞에 와서 멎은 자동차 문이 열리자 수상 동지께서 천천히 내리시였다.

수상 동지께서는 웃음을 지으시고 손을 들어 답례하시며 우리 앞으로 걸어 오시더니 맨앞에 선 동무들로부터 일일이 악수를 하시면서 나의 앞으로 다가 오셨다.

내가 긴장하여 차렷 자세를 취하자 수상 동지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미셨다.

나는 저으기 당황하였다. 수상 동지의 손우에 어찌 이 딱딱한 의수를 내밀 수 있겠는가.

내가 어쩔 바를 몰라 주저하는 것을 보시자 그이께서는 한 걸음 더 내 곁으로 다가 서시더니 나의 의수를 꽉 잡아 주시는 것이였다. 그리고는 손수 두 팔이 없는 나의 량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이리 저리 한참이나 어루만져 보시는 것이였다.

《고향은 어디요?》

나는 목이 메여 잠시 대답을 못했다.

《동북입니다.》

《부대는 어느 부대였지?》

《2 군단 2 사였습니다.》

《부상은 어디서 당하구?》

《충청북도 진천 전투에서입니다.》

《그래 장가는 갔소?》

《네!》

《부상 당한 후에?… 전에 갔다… 좋아, 그 손으로 밥은 어떻게 자시오?》

《술을 의수에 끼워서 먹습니다.》

《대소변 보기가 제일 힘들겠군》

《일없습니다. 자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고?》

《집에서 단추를 채워 줍니다.》

《음…》

수상 동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 손으로 글도 쓸 수 있소?》

하고 다시 물으시였다.

《빨리는 쓸 수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자세를 바로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럼 한 번 써 보우.》

수상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친히 상의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뽑아서 나에게 주시였다.

나는 더욱더 어쩔바를 몰랐다. 너무나 흥분하여서인지 나의 의수가 제대로 만년필을 받아 쥐지 못하게 되자 수상 동지는 걱정어린 안색으로

《좋소. 그럼 글 쓰는 동작만이라도 해보우,》

하시며 만년필을 몸소 나의 의수에 꽉 끼워 주시는 것이였다.

나는 흥분된 자신을 억제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으나 끝내 흐느끼고야 말았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량 볼로 흘러 내렸다.

십 년을 하루 같이 아침마다 나의 세수를 시켜 주며 어린애처럼 단추를 채워 주는 안해도 미처 나의 의수에다 붓을 끼워 주고 글을 씌워 본일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수상 동지는 나에게 만년필을 쥐여 주며 글 쓰는 동작만이라도 보셨으면 하는 것이다.

나는 육친보다 더한 수상 동지의 따뜻한 보살핌 앞에서 울지 않고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수상 동지가 나와 외면을 하신 채 서계시여 한동안 안색까지 흐리시는 것을 감촉하고 더욱 불'덩이 같은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수상 동지께서 쥐여 주시는 그 만년 필을, 내가 받아 쥐고 척척 능숙하게 글을 써 뵈였더라면 그이께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안심하셨겠는가!

나는 자기의 상처로 하여 수상 동지의 마음까지 괴롭히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안타깝고 죄송스러웠다.

이 때 수상 동지는 작업장에서 달려 온 우리 동무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그이를 마중 나오기 어려워서 뒤'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저 동무들은 어떤 동무들이요?》하고 물으시였다.

《우리 작업소의 영예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드리자 수상 동지는 손을 쳐들어 흔드시며

《다 이리 오우! 오라구!》하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하여 동무들은 마구 달려 와서 수상 동지를 에워쌌다.

그러자 수상 동지는 《저기 넓은 마당으로 가지…》하고 두 팔을 벌려 우리들을 량쪽에 껴안으신 채 작업소 뒤'마당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우리는 그이를 회의실로 안내하려고 했으나 수상 동지는 널직한 바깥 마당이 좋다고 하시면서

《걸상이 좀 있으면 갖다 놓고 담화나 하자구.》하고 우리를 돌아 보시였다.

우리가 사무실에 가서 의자를 들고 나오려 하자 수원들이 달려 와서 《동무들은 앉아들 있소.》하고 의자들을 빼앗는 것이였다.

우리는 회전 의자 우에 백포를 펴고 수상 동지께서 앉으시기를 권했다.

그러나 수상 동지는 《나는 이런 든든한 의자에 동무들과 같이 앉는 것이 좋소.》하시며 우리가 만든 긴 의자에 앉으시는 것이였다.

수상 동지의 이 말씀을 나는 마음 속으로 다시 되뇌이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수상 동지를 모신 더 없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하여 다시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상 동지는 기울어지는 해를 쳐다 보시며

《저물기 전에 먼저 사진이나 한장 찍는 것이 어때?》 하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수상 동지는 나를 돌아 보시며

《동무의 가족도 나왔소?》

《네! 저기 나왔습니다.》

《그럼 같이 찍어야지. 두팔 없는 동무들은 가족과 꼭 같이 찍어야 돼…》 하고 거듭 타이르듯 말씀하셨다.

나는 끓어 넘치는 행복감으로 하여 어쩔 바를 몰랐다.

한 낱 이름 없는 영예 군인인 내가 처와 함께 수상 동지 곁에서 기념 사진을 찍다니? 이 영광, 이 행복을 꿈엔들 어찌 상상할 수 있으랴.

《동무들도 와서 앉소.》

수상 동지는 수원들에게도 같이 찍자고 권하시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저하는 것을 보시고 수상 동지는 한 장령에게

《오 백룡 동무도 오라구.》하시더니 우리를 돌아 보시며

《저 동무도 영예 군인이요. 이전에 나와 함께 빨찌산 투쟁을 했는데 부상을 여러번 당했거든, 그러니 영예 군인이지.》하고 웃으셨다. 좌중은 잠시 웅성거렸다.

촬영이 끝난 후 수상 동지는 우리와 함께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곤난한 문제들이 있거든 말들 해보우… 없다? 없을리 있나…말하라구.》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서 말해 보우. 내 앞에서 사양해선 안돼.》

수상 동지는 우리가 여전히 어려워 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럼 내가 좀 물어 보기요. 외출복들은 다 있소?》하고 먼저 하나하나 물어 보시는 것이였다.

《네, 있습니다.》

《주택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장가들은 다 갔소?》

《한 동무 못 가고 다 갔습니다.》

《좋아, 또 말하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 났다.

《저희들은 지금 농산과 축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체질에는 그보다 과수 재배를 하는 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소에는 과수원이 적습니다.》

《과수원이라…》

수상 동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수원들을 쳐다 보시자 수원 한 분이

《이 동무들에게 쌍룡 조합에서 제기된 과수원을 넘겨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수상 동지께 말씀 드렸다.

그이께서는 《좋습니다. 그걸 주자구》하시고는 또 다음 문제를 제기하라고 말씀하셨다.

일상 생활에서 이렇다 할 곤난을 모르고 살아 온 터이였지만 수상 동지의 간곡한 물으심에 의해서 우리는 사소한 애로까지도 찾아서 말씀드리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생산용 연료는 공급되지만 가정용 연료가 다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다.

수상 동지는 즉석에서 우리들의 가정용 연료를 석탄으로 100 % 보장해 줄 데 대하여 수원들에게 지시하셨다.

다음으로 작업소 업무원 동무가 일어섰다.

《수상 동지, 현재 지방에 분산된 영예 군인 작업소들을 통합해서 다양한 직종을 가진 큰 규모의 작업소로 발전시켜 집단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제기하자 수상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지방에 분산돼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거든. 우선 지방 인민들에게 전투에서 단련된 동무들이 좋은 모범을 보여 줄 수 있고 다음에는 지방 자재를 리용할 수 있으니 좋고 때로는 인민들로부터 방조를 받을 수 있으니 좋고… 이것이 얼마나 좋소. 그저 100 명 정도가 적당해. 그 이상 넘으면 좋지 않아…》

다음에 수상 동지는 작업소 기업 관리 운영 정형에 대하여 이모저모 세심하게 물어 보시였다.

우리 영예 군인들도 국가 과제를 초과 완수하기 위해 지어는 한 팔 가진 동무가 하루 3~4백 평의 제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수상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동무들은 몸을 무리해선 안 되오. 밥 맛이 있을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이 좋소. 당과 정부에선 동무들을 고이 놀리며 먹일 수 있소. 그러나 사람이 먹고 놀기만 하면 밥 맛이 없는 법이거든. 그러니 동무들은 일은 하되 절대로 무리해선 안 되오. 그저 밥 맛이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소.》

나는 수상 동지의 이 지극한 념려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수상 동지는 지금 원쑤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은 우리에게 일생을 두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분에 넘치는 배려를 주시면서도 우리들이 자진하여 하고 있는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까지 무리해선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것이다.

계속하여 수상 동지는 《가족들도 함께 나와서 동무들을 도와서 일하는 것이 좋소. 불구된 남편들도 일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집에 고이 앉아 있어서야 되오? 남편들을 도와야지. 그렇게되면 일이 더 잘 되니 좋고 생활이 더욱 향상될 수 있으니 좋아, 이것 저것 다 좋지 않소?》하시며 웃으셨다.

다음으로 농산 작업반에 있는 한 동무가 일어나서 자기의 입당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 수상 동지께서는 《동무는 아직 입당 못했소?》하고 물으셨다.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했소?》

《전선에서 일찍 부상을 당하고 오래 동안 후방 병원으로 돌아 다닌 데다가 자신의 준비 정도가 아직 어려서 입당 못했습니다.》

수상 동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수원 중의 한 간부 동무를 돌아 보시며 《어떻소? 이 동무들을 대담하게 당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 동무들이야 전선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좋은 동무들이 아니요!

그러나 입당은 어디까지나 개별적 입당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하오.》하고 말씀하신 후 다시 우리들을 돌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영예 군인들이라고 해서 술 먹고 호지부지해서는 안되오. 나는 그런 동무들을 좋아하지 않소. 그런 동무들이 있으면 서로 비판하고 고쳐 주어야하오. 동무들끼리야 일 있소? 그리하여 언제나 인민을 사랑하고 원쑤를 증오할 줄 알아야 하오.》

우리는 수상 동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으기 긴장해졌다.

《인민을 사랑하고 원쑤를 증오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수상 동지의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속으로 외워 보았다.

수상 동지는 말씀을 이으셨다.

《동무들이 전선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잘 싸운 것처럼 오늘도 바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하오. 그리하여 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자녀들도 그런 정신으로 교양을 주고…》

그렇다! 전선에서 우리가 원쑤들과 싸웠다고 자만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교시대로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 당과 수상 동지의 극진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붉은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

좌중은 잠시 엄숙해졌다. 수상 동지는 잠시나마 긴장되였던 그 분위기를 감축하셨는지 옆에 앉아 있는 성식 동무를 향해 《동무는 장가를 갔소?》하고 물으시였다.

《못 갔습니다.》

《왜? 대상이 없어?》

《아닙니다. 저는…》하고 성식 동무가 당황해 하자 좌중에는 웃음이 터져 엄숙했던 분위기는 삽시에 살아져 버렸다.

《수상 동지, 저는 장가 보다도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 같이 두팔 없는 사람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학교? 왜 못가겠소! 마땅히 가야지. 그래 글은 쓸 수 있소!… 있다!… 그럼 어느 학교에 가고 싶소?》

《송도 정치 경제 대학입니다.》

《좋아, 후에 편지로 통지해 줄 테니 꼭 가도록하오. 배우겠다는 동무들이야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 정치 사업을 희망하는 동무들은 중앙당 학교에까지라도 갈 수 있어.》하고 우리를 고무해 주시였다.

이 때 다른 한 동무가 일어서서

《수상 동지. 저희들은 학교나 기술 학습을 희망해도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이께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교원이 몇 명이나 있으면 되겠느냐고 물으시였다.

《세 명이면 됩니다. 그러나 교원을 그렇게 고정적으로 배치하면 독립 채산 기관으로서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국가 폰드로 해결해 주지. 다른 문제를 또 말하시오. 악기는 요구되지 않소?》

《불구자들이 돼서 악기는 다를 수 없습니다.》

《될 수 있어, 왜 악기를 못다룬다고 그러우, 장기도 두고 퉁소도 불고…왜 화선 악기 다루던 그 솜씨가 있지 않아? 노력하면 다 될 수 있어.

우리들은 언제나 락천적으로 살아야지! 더우기 동무들은 더 락천적으로 살아야 하오. 락천적으로 말이요. 그래서 경성, 라남 작업소의 영예 군인들과 합쳐서 경연 대회도 한번 해보고… 어때?》하고 웃으셨다.

수상 동지는 영예 군인들이기 때문에 락천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수상 동지의 이 말씀은 특히 두팔 없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난관 앞에서도 희망과 긍지를 잃지 않고 락천적으로 살아 나가라는 말씀이였다.

수상 동지는 우리에게 영화 구경을 자주 하느냐고 물으시였다.

《이동 영사대가 내려 오기도 하고 자주 읍으로 나가 구경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자동차가 한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 동지는 한참 생각에 잠기시더니 수원들을 돌아 보시고

《이 동무들에게 자동차를 한 대 주어야겠소. 길주 자동차 사업소에서 래일 제일 좋은 새차 한 대를 먼저 돌려 주고 그 대신으로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후에 내려 보내 주시오.》라고 지시하신 후 《동무들 가운데 운전수는 없소?》하고 다시 물으셨다.

수상 동지는 운전수가 없다는 말을 들으시자 그럼 운전수까지 붙여서 래일 중으로 꼭 주라고 다시 강조하시였다.

우리들은 모두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에 휩싸였다.

오늘 나라의 급속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들끓고 있는 우리의 공장, 우리의 전야마다에서는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긴절하게 요구되는가! 그런데 지금 수상 동지는 우리 영예 군인들의 생활상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새 차를 래일 중으로 꼭 해결해 주라고 거듭 지시하시는 것이다.

수상 동지는 시종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우리를 돌아 보시였다.

《더 제기할 것은 없소?》

《없습니다.》

《좋소!》

이윽고 수상 동지는 대단히 만족해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 서시더니 살림살이를 좀 돌아 보자고 하시면서 걸음을 옮기셨다.

구락부를 돌아 보시던 수상 동지는 걸음을 멈추시고

《인원이 전부 몇이나 되오?》하고 물으셨다.

《100 명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수상 동지는 수원 한 분을 돌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락부가 좀 작구만, 더 커야겠소.

이것을 탁아소로 만들고 이 옆에 150석 정도의 구락부를 새로 지어 주시오. 문화적으로 아담하게말이요. 오락 기구도 더 마련해 주고…》

구락부에서 나오신 수상 동지는 친히 우리 집을 방문하셨다. 나의 처를 보시자 수상 동지는 《남편을 잘 보살피오?》하고 물으셨다.

나의 안해가 너무도 감격하여 얼굴을 그이 앞에 숙인 채 목이 메여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수상 동지는 《좋소, 남편을 잘 섬겨야 되오.》하고 웃으시더니 채마 밭을 바라 보시며 《이 밭에 무엇을 심었소?》하고 물으시였다.

《주인이 고추를 좋아해서 올해는 고추를 다 심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자 수상 동지는 저으기 만족해 하시며 수원들과 함께 이부자리와 옷장, 주방 살림에 이르기까지 돌아 보신 다음 살림살이가 이만하면 안심되신다는 듯이 웃으시며 나의 안해에게 《오늘 저녁엔 꼭 맛 있는 음식을 해 잡수시요.》하고 우리 집을 떠나시였다.

돌아 가시는 길에 수상 동지는 작업소 뒤산을 바라 보시며

《저기에는 뭘 심었소?》 하고 물으셨다.

《과수 묘목을 심었습니다.》

《잘 했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얼마나 좋소! 앞으로 더 많이 심으라구.》

이렇게 우리를 치하하며 고무해 주시였다.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석양 노을이 울먹이는 우리들의 얼굴을 더욱 붉게 물들였다. 수상 동지께서 떠나셔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수상 동지는 우리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승용차 앞으로 걸어 나가시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성식 동무를 찾으셨다.

《학교에 꼭 가라구. 내가 가서 련락을 하지.》

수상 동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하시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모자를 흔드시며 《안녕히, 안녕히들…》

이렇게 몇 번이고 거듭 말씀하시며 떠나시였다.

차가 떠나자 우리들의 심정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떨어진 어린애마냥 그이의 곁에서 떨

어지는 것이 아수하고 서글프기 짝이 없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량강도 혜산에 도착하신 수상 동지는 전화로 친히 길주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을 찾으셔서 어제 영예 군인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었는가를 알아보신 다음 미결된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 때로부터 얼마 지나서 수상 동지는 량강도 현지 지도를 마치시고 평양을 향해 귀로에 오르셨다.

나는 길주역을 통과하시는 수상 동지를 환송하기 위해 몇몇 영예 군인들과 함께 역으로 나갔었다.

군내 각처에서 모여 든 수 많은 환송 군중들로 꽉 찬 역 구내로 수상 동지를 모신 특별 렬차가 서서히 들어섰다.

구내를 뒤흔드는 환호를 받으시며 렬차에서 내리신 수상 동지는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영예 군인 작업소에서도 나왔느냐고 물으셨다.

내가 수상 동지 앞에 나서자 그이는 공화국기를 쥔 나의 의수를 잡으시고 《됐어, 그렇게 차리고 나서니 불구자인 줄 모르겠구만》라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였다. 그리고 먼 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고 정겹게 물으시는 것이였다.

《수상 동지께서 주신 새 차를 타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수상 동지는 만족해 하시면서 과수원을 비롯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였느냐고 거듭 물으셨다.

나는 수상 동지의 이 세심한 관심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돌아 가면 동무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오. 그럼 다들 안녕히…》

수상 동지는 다시 차에 오르셨다.

들끓는 환호 속에 렬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여 차츰 멀리 사라졌다.

나는 렬차가 사라진 먼 산'기슭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국의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충심으로부터 수상 동지의 만수 무강을 축원하였다.

그 날 저녁 나와 안해는 늦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의 안해는

《나는 여태 정성껏 당신을 돌보느라고 했지만 수상님의 그 보살핌에 비하면 천 분의 일도 못 해 드렸어요.》 하면서 울먹이였다.

그 후 우리 영예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마다에서는 수상 동지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어떤 난관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우리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고향을 남반부에 둔 동무들은 수상 동지를 직접 뵙고 기념 촬영까지 하게 된 감회를 피력하면서 이 행복한 세상에서 같이 살지 못하는 자기 부모 형제들을 생각하여 눈물까지 흘리며 수상 동지의 교시를 기어코 관철시키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졌다.

수상 동지의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영예 군인들과 가족들은 그이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해 한결 같이 떨쳐 나섰다.

전체 가족들은 불구된 남편들의 로동을 덜어 주라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생산에 떨쳐 나섰으며 더욱 더 지극하게 남편들을 보살펴 주고 있다.

우리 영예 군인들은 그 해 국가 과제를 엄청나게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당 옥수수 수확고에서는 지어 군'적으로 제일 높은 다수확을 냈다.

특히 수상 동지께서 친히 배려해 주신 과수원에서 한 알의 사과라도 더 많이 내자고 궐기한 우리 영예 군인들은 거름을 전 해에는 정당 35 톤 냈다면 이듬해에는 정당 140 톤씩 넘으로써 사과의 정당 수확고를 훨씬 높였다.

작업소 마당에는 수상 동지가 배려해 주신 아담하고 문화적인 새 구락부와 주택들이 일어 섰고 성식 동무는 소원 대로 송도 정치 경제 대학으로 떠났으며 우리들은 전임 교원들의 방조 하에 일하면서 배우게 되였다.

우리 영예 군인들은 붉은 꽃을 계속 피우기 위하여 비록 불구자들의 작은 힘이나마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로력 투쟁에 일떠 섰다.

락천적으로 살라고 하신 수상 동지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선 한 가지 이상씩의 악기에 숙련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생활은 갈수록 더욱 흥겹고 보람차다.

우리는 이 행복에 찬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수상 동지의 그 뜨거운 손'길을 온몸에서 느끼며 그이의 크나큰 배려에 보답하려는 일념으로 들끓고 있다.

근면하고 검박하게

지금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민청 단체 앞에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심오히 학습하면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자신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온갖 부화하고 안일한 현상들과 낡은 부르죠아적 생활 인습의 침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모두가 다 검박하게 생활하며 근면하게 일하는 혁명적 품성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편집부는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평북 선천군 삼성 농업 협동 조합 제 3 작업반 민청 단체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자》는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근면과 검박은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품성

△민청 위원장—처음에 오늘 토론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참가하여 주신 세포 위원장 김 제환 동지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 김 제환—근면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 나라 근로 인민의 전통적인 미덕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의 혁명적 품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더욱 근면할 수록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여 나라를 번영하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로 인민들은 자신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열매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검박하게 생활하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취 계급은 진탕 처먹고 마시고 놀면서 부화하고 사치와 랑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일제 때 선천읍에 오 필윤이라는 지주'놈이 있었는 데 우리 마을의 대부분의 토지는 그놈의 것이였습니다. 그놈은 매일과 같이 다른 지주, 자본가 놈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에 기생을 데리고 유람 다니는 등 기생충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화 안일하고 사치와 랑비를 일삼는 놈들의 썩어 빠진 생활은 근로 인민의 피땀을 더 짜내며 나라를 쇠퇴시키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착취 계급들도 근로 인민들을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떠들어 댑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주, 자본가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착취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할 수록 더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억울했던 지난날과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취 계급이 없어진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근면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의 가장 고귀한 혁명적 품성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 하에 푼전을 아껴 가며 근면하게 일하면서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온 결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가져 오지 않았습니까! 수리화가 되고 전기화, 기계화가 되여 가는 우리 마을 협동'벌은 얼마나 자랑찹니까! 우리가 근면하게 일한 결과 오늘에는 문화 주택이 즐비하게 늘어 서고 봄이 오면 모든 야산에 가꾸어진 과수원에 꽃이 만발하며 마을은 풍요한 화원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성과에 자만 도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혁명은 간고하며 항상 긴장된 생활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우리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반부 인민을 구원하며 계속하여 전 조선 땅에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긴장된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부화하고 안일한 현상과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온갖 부르죠아 생활 인습의 침습을 반대하며 더욱 근면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품성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청년들은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우리 당의 견결한 공산주의 투사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청년들 앞에 제시한 영예로운 과업을 어김 없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로동의 영예와 보람을 느낄 때

△리 영희—나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로동의 영예와 보람을 진실로 깨닫고 느낄 때만이 근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 생활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 나는 로동의 영예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데로부터 근면하지 못하고 건달을 부리려는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이나 만나 편안히 살면 행복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도시에 출가하려는 꿈도 꾸었댔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가정생활을 꾸리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불만족하게 생각되였고 우울해지며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도 밭이 아니였습니다. 문제는 저의 로동에 대한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조직의 따뜻한 방조와 특히는 항일 빨찌산들의 고상한 혁명 정신과 그들의 근면하고 검박한 혁명적 품성을 배우면서부터 나의 낡은 사상 잔재도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로동의 영예와 보람을 진실로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하기는 거북하지만 이런 결과 오늘 우리 가정에는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저녁이면 서로 그날에 자기가 한 일 자랑을 하는가 하면 다음 날의 경쟁을 맺기도 합니다. 가정 일도 서로 도와 주고 방조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로동으로 이루어질 앞날의 고향과 조국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 속으로 그려도 봅니다. 그럴 때면 의례히 로동의 영예와 보람이 더욱 느껴지고 보다 근면하게 일할 결의를 가다듬군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행복한 생활은 우리들이 근면하지 않고서는 찾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답게 일을 찾아 해야 한다

△전 광섭—나는 우리가 더욱 근면해지자면 맡겨진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례를 들면 조합원들로부터 근면하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김 제오 동무가 랭상모를 충실히 기르기 위해 얼마나 이악하게 달라 붙어 일했습니까. 그리고 그 곳 일이 좀 수월해지자 그 일은 어머니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장 힘든 이앙 사업에 자진하여 동원되였으며 이앙 작업에서도 혁신을 일으켰거던요.

△문 성을—나는 우리들이 근면한 품성을 지니자면 일에서 성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번 자급 비료 반출시에 어떤 동무는 량에만 치우치고 운반한 퇴비를 잘 쌓아두지 않은 결과 볕에 말라 그의 질이 저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일에서 성실하지 못한 동무는 근면한 품성을 지닌 동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 제오—그것만이 아니예요. 근면하다는 것은 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탁아소 보모로서 일하고 있는 리 관복 동무가 바로 그러하다고 봐요. 그는 15 명의 어린이를 훌륭히 돌보면서도 어머니들의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집에서 입고 온 아이들의 의복까지 빨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그는 짬을 리용하여 수 많은 토끼를 길러 어린 아이들의 완구를 해결하고 탁아소를 보다 문화 위생적으로 꾸렸습니다. 또한 아침이면 남보다 일찍 일어나 다른 집들의 바깥 청소를 해 주고 어린애가 많은 집을 찾아 다니면서 어머니들을 대신하여 업어 나릅니다. 밤이면 의학 공부를 하여 반원들을 치료해 주는 등 그는 자기가 맡은 일만 아니라 일을 찾아 가면서 성실하고 창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근면한 품성이예요.

△문 정모—나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들은 400 평의 논에다 과석을 너무 많이 뿌린 결과 벼의 성장에 크게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시비 체계와 비료의 성능을 잘 모르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기술 혁명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로동에서만 근면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정치 학습과 기술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들이 옥수수 탈곡기를 창안하여 하루에도 수백 공수의 로력을 대신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랭상모 나래 엮기틀》 《가마니 짜는 기계》 등 수다한 것들이 다 근면한 기술 학습이 안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동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근면해야 합니다. 일을 연구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로동을 더 헐하게 하고도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면한 품성에서 지녀야 할 중요 측면의 하나라고 봅니다.

생활을 검박하고 절도 있게

△문 성학—세포 위원장 동지도 말한 바와 같이 검박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 나라 근로 인민의 전통적인 미덕이며 공산주의 건설자의 혁명적 품성의 하나입니다. 인민의 완전한 해방과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 투사는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탐내는 것을 더 없는 수치와 죄로 인정하며 항상 간고한 투쟁에는 앞장에 서고 일상 생활에서는 근검하고 소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들은 가정과 개인 생활에서도 항상 검박하고 절도 있게 생활하며 사치와 랑비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생활을 검박하게 꾸리지 못하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너무 화려하게 꾸리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될수록 사치한 옷을 입으며 괴이한 《풍습》을 따르려고 하는 동무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다 검박한 생활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박 기형—문 성학 동무의 토론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나는 이와 함께 생활에서 건전한 문화성과 검박한 생활을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부 동무들처럼 집도 자기 손으로 잘 꾸릴 수 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 옷도 되는 대로 입고 머리도 제때에 깎지 않아 덥수룩 해 다니는 것이 마치도 《검박한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박한 생활 기풍이 아니라 《게으름뱅이》입니다. 검박한 생활은 항상 문화적이여야 합니다.

△리 관복—검박한 생활 기풍은 계획적이며 절도 있는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습니다. 나는 《작업반의 보배》라고 불리우며 작년에 조합적으로 녀성들 중에서 최고의 로력 점수인 620 공수를 쟁취한 민청 부위원장 김 복록 동무의 실례를 들 수 있습니다. 늙으신 할머니와 학교에 다니는 동생들까지 다섯 식구를 거느리고도 그는 남보다 더 훌륭히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생활에서 특이한 점은 계획적이며 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배가 끝나면 일년 생활 계획을 월별로 정확

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현금은 모두다 저금해 두었다가 매달 필요한 금액을 찾아 조리 있게 써 나가니 언제나 여유 있게 살아 나가지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저축하여 해마다 살림도 늘어 가게 하지요. 그러나 계획적이 못되고 절도 있는 생활을 못하는 동무들은 세 식구에 두 부부가 일하고도 몇 달이 못가서 용돈이 없다고 야단치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랑비를 초래할 수 있는 버려야 할 낡은 습성이며 검박하지 못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로동의 열매를 소중히 여기며 아낄 줄 아는 고상한 정신을 소유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생활을 계획적이며 절도 있게 잘 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비단 개인 생활에 한한 것이 아니다

△김 제오—검박한 생활은 비단 개인 생활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검박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로동의 창조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랑비를 없애자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며 적극 절약할 줄 아는 것도 검박한 생활의 한 측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논판에 버리고 간 호리 5 개, 써래 3 개, 측력기 2 개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 재산을 애호할 줄 모르는 성실하지 못한 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공동 재산을 애호한 모범들은 수다합니다. 금년에 랭상모 문짝에 바를 종이를 해결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조합 내에 있는 수 많은 휴지들을 수집하여 군 제지 공장에서 새 종이와 바꾸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조합 재산을 애호 절약하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조합에서 사용할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조합 재산을 애호 절약하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조합은 더 부유해질 것이고 이것은 또한 사회주의—공산주의 락원을 빨리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 그만큼 더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 ×

△민청 위원장—오늘 토론은 모두가 옳게 하였으며 매우 유익한 것이였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일부 근면하고 검박하지 못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 4 차 당 대회가 청년들 앞에 제기한 중요 과업인 근면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혁명적 품성을 소유할 데 대한 문제를 더욱 심오히 연구하고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갖 부화하고 안일한 현상과 부르죠아적 생활 인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보다 근면하고 검박한 생활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한 근검 건국 사상은 자력 갱생의 정신과 불가 분리적으로 련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면서 우리 나라를 하루 속히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에 올려 세우자면 더욱 근면하게 일하고 검박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일 빨찌산들처럼 살며 일하며 배우면서 그들처럼 간고한 투쟁에서는 앞장에 서며 근면하고 검박한 품성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위업을 계승하여 조국 땅에 공산주의의 지상 락원을 건설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영예롭고 고상한 임무입니까. 우리는 이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근검하게 나라를 건설하면서 우선 금년도 알곡 500만 톤 고지를 빛나게 점령하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7 개년 계획의 높은 봉우리로 치달아 올라야 하겠습니다.

☆

☆ ☆

로동당의 딸



—남포 수산 사업소 《조선 로동당의 딸, 청년 녀성 영웅호》 선장과 그의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

지난 2월 상순에 있은 전국 수산 부문 열성자 대회 마지막 날에 대회의 연단 우에서는 스무살을 갓 넘은 한 처녀가 토론하고 있었다. 갸름한 얼굴, 예지로 빛나는 눈… 열정에 충만된 그의 목소리는 쟁쟁하게 장내에 울려 퍼졌다.

《우리 남포 수산 사업소 천리마 청년 녀성호 성원들은 수상님이 직접 보내 주신 훌륭한 기관선을 타고 다니는 영광과 함께 수상님의 품 속에서 오늘과 같이 떳떳한 바다의 딸로 자라고 있음을 한 없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토론의 첫 머리를 떼였다.

그의 토론은 박수 갈채로 여러 번 중단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 하시였던 수상 동지께서는 그의 토론을 들으시고 그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영웅적 활동을 높이 치하하신 후 그 배를 《조선 로동당의 딸, 청년 녀성 영웅호《로 부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김 병숙 동무에게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로력 영웅 칭호가 수여되였다.

륙지에서 무전수로 일하던 병숙이가 강원도 수산 부문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법선 안강만 《남포 1호》를 찾아 간 것은 그가 열 아홉살 때였다. 선실의 문'고리를 잡은 그는 무심 중 안에서 흘러 나오는 말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거 우리 배에 처녀가 온다지? 예로부터 배에 치마끄리만 얼씬하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법이지…》

부선장의 말이였다. 선장 아바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글쎄 말이야, 들뜬 공명심이나 아닌지. 원! 멀미라도 하면 업고 다녀야 할 처지니?》

병숙이는 문'고리를 잡은 채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들어갈 형편도 못되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되돌아 설 수도 없었다. 어머니며 동리 늙은이들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온 바다, 그렇게

도 나오고 싶었던 바다를 생각하니 눈물이 솟구쳐 나왔다. 한참 서서 멍하니 생각에 잠겼던 그는 문을 밀고 들어 섰다. 그러면서 우야 쾌활하게 말했다.

《선장 아바이 오늘부터 저도 함께 일하자요.》 늙은 어로공들은 시답잖은 시선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병숙이는 이렇게 서해의 녀성 어로공이 되였다.

심한 멀미가 그를 괴롭혔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시꺼워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 불과 며칠 어간에 그의 오동통하던 두 볼이 꺼져들고 걸음도 비칭 거렸다. 그러나 폭풍 속의 참대처럼 굽어들줄 모르는 이 어린 처녀는 모든 곤난을 꿋꿋하게 견디여 나갔다. (만약 내가 약점을 보인다면 선장 아바이는 나를 배에서 내려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겁이 더럭 났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남성 어로공들과 함께 그물 줄을 당겼고 닻줄을 잡았다. 그 뿐만 아니라 밤에도 자지 않고 남자들 옷을 도맡아 세탁하였고 배칸 청소도 하였다. 병숙 동무가 나타난 불과 며칠 어간에 배는 딴 배처럼 윤택이 돌았다. 어로 작업을 하면서도 그는 밥짓는 주부일까지 맡아 하였다. 그러노라니 어린 몸이 피곤인들 오죽하랴! 선장 아바이가 어느 이른 새벽에 보니 병숙은 밥이 타는 줄도 모르고 가마 앞에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박고 새근새근 잠들고 있었다. 그의 무릎 우에는 밥을 짛으면서 보다만 기술 학습장이 얹혀있었다. 선장은 콧마루가 찡 하였다.

《우리가 사람을 헛봤지. 이런 처녀가무슨 일인들 못할라구.》

선장 아바이는 어린 처녀를 살그머니 안아 선실로 가져 갔다. 그러나 그를 눕히려는 순간 처녀는 화닥닥 잠이 깨였다.

《념려 말구 어서 자거라, 밥은 내가 보지 않으리.》

《아바이두 원! 난 남보다 두몫 세몫 일하려고 바다에 나왔어요.》

하고 처녀는 쪼르르 미끄러지듯 다시 취사장으로 달려갔다. 남들이 자기를 리해해 준다는 사실이 그를 한없이 흥분 시켰던 것이다.

병숙이의 뒤를 이어 순실이, 정희, 수억이 등 처녀들도 바다로 나왔다. 병숙이는 당 단체와 사업소 민청 위원회 지도 밑에 이들을 묶어 세워 1960년 7월에 8 메터 짜리 자망선으로 첫 녀성호를 조직하고 그의 이름을 《청년 녀성호》라고 불렀다.

수상님이 다녀 가신 후

1960년 10월 6일, 어둠도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 새벽의 선창'가에 수상 동지께서 친히 나오시였다. 금방 바다에서 돌아 와 그이를 우러러 뵈는 병숙이의 가슴은 한없이 높이 뛰였다.



수상 동지께서는 이날 아침 병숙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잠자리는 어떻고 식사는 어떤가? 가정은 어떠하며 부모들은 건강한가 등 일일히 물어 보신 후 그들이 한 일을 높이 치하 하시면서 《용감한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녀성들의 생활 조건에 맞는 기관선 한척을 줄 것을 말씀하셨다.

자애로운 그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숙이는 감격의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움을 어찌는 수 없었다. 그는 남보다 일을 두곱세곱 잘하여 반드시 그이의 기대에 보답하리라고 거듭거듭 마음 다졌다. 수상님이 다녀 가신 후 녀성호 선원들의 생활에는 전변이 일어났다. 하루에 세번하던 기망 회수를 네번 이상으로 높였고 한 톤짜리 돛을 올리는 일도 썽썽 해제끼군 하였다. 밤잠을 잊다싶이 하면서 고기를 잡아 수상님이 다녀 가신 열흘째 되는 날 그 해의 계획도 2 개월이나 앞당겨 빛나게 완수하였고 이날 병숙이는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후보 당원의 영예를 지녔다.

얼마 후 병숙이네는 수상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아담하고 문화적인 기관선을 받았다. 그때의 감격을 무엇에 비기랴!

병숙이는 조타실에 들어 가서 힘껏 조타를 틀어 잡았다. 어찌 수상님이 보내 주신 배를 서투루게 다룰 수 있겠는가. 그들은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저이들 처녀들로서 선장도 되고 기관장도 되고 부선장도 되고 조기장도 될 것을 결의해 나섰다.

기술 습득을 위한 맹렬한 투쟁이 벌어 졌다. 낮에는 고기를 잡고 밤에는 배'간에 모여 밤을 새우며 학습 했으며 기술자들을 찾아 다니며 배워 온 것을 실습도 하였다. 남들이 잠든 틈을 타서 기관의 구조를 익히는 김 정희, 배의 운전을 배우는 순실이… 사람이 이악하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다. 그들은 남이 10년 걸려야 배운다는 안강망 기술도 불과 얼마'동안에 득달하고야 말았다.

1961년도의 어로 작업을 준비하던 때 일이다. 그들은 조망 작업에 달라 붙었다. 이 일은 한다하는 기능공들도 8천코 밖에 뜨지 못 했다. 그런데 경험이 어린 그들은 아무리 애써도 하루에 3천코 밖에 뜨지 못했다. 그렇다고 민청원들이 남에게 뒤질 수는 없는 일이다. 어서 빨리 출어 준비를 끝내고 남보다 먼저 바다로 나가려는 붉은 마음으로 그들은 밤을 지새면서 일했다. 다른 배의 성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휑뎅그레하게 넓은 작업장에서 처녀들은 눈을 부벼가며 일'손을 놓지 않았다. 내중에는 추운 겨울철 작업장에 아예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와 침식을 하면서 일을 하였다. 이에 감동된 그들의 어머니들도 달려 왔다. 직장에 다니는 그의 오빠들, 학교에 다니는 어린 동생들도 교대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면 달려와 일손을 도왔다. 하여 그들은 끝내 1만 8천 코까지 떴으며 다른 배들보다 15일이나 먼저 첫 출어의 기'발을 휘날렸던 것이다.

서해의 7~8월 어한기가 닥쳐왔다. 예로부터 어로공들은 이때가 되면 《그까짓거 어한기에는 놀다가 성어기에 한물 봉창하면 될판이지》 하고 휴식하기가 일수였었다.

병숙이 역시 5~6일 동안에 겨우 24 키로의 고기를 잡았을 뿐이였다. 그는 언제나 품에 품고 다니는 붉은 수첩을 꺼내들고 수상 동지의 교시를 연구하였다.

(그렇지, 수상 동지께서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 능히 어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날부터 녀성호 성원들은 조수가 밀려 들때면 고기를 잡고 물이 찌면 허리까지 빠지는 감탕에 뛰여들어 조개와 뚝갑을 잡고 바스래기를 긁어 모았다. 전마선으로 낙시질도 하였다. 이리하여 다른 배들이 빈 배로 돌아 올때도 그들만은 언제나 풍어기를 달고 돌아 왔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지난해 계획도 어머니 당 대회 전으로 완수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들을 《어한기를 성어기로 전변시킨 처녀들》이라고 불렀다. 어찌 그 뿐이랴! 그들은 배를 잘 관리하고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는데도 모범적이였다. 그들의 배는 그 어느 부문이건 기름이 돌돌 구으는 듯 했으며 여덟명 전원이 누구 하나 가야금을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고기잡이가 끝난 후이면 의례히 그들의 배에서는

북소리, 가야금 소리에 어울려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때로는 갑판 우에서 빙글빙글 춤추며 돌아가는 흥겨운 모습도 보였다.

연평도 앞바다에로

심청이가 산 제수로 죽었다는 임당수의 배'길은 사납기 짝이 없었다.

그들이 그 사나운 물'결을 헤치고 해주 앞바다로 진출할 것을 결의해 나섰을 때 일부 사람들은 녀성호로는 어림도 없다고 대경 실색하였다. 그렇다고 어찌 연평도의 조기가 남포 앞바다에까지 밀려 들 것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자기의 머리를 친 딸처럼 쓰다듬어 주시던 수상 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생각할 때 병숙이에게는 새 힘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결연히 배'머리를 해주 앞바다로 돌렸다.

집채 같은 파도가 삼킬 듯이 덤벼 들었다. 배는 구름길에 허공 솟아 올랐다가 떨어지군 하였다. 뒤 따르던 배들은 그들을 보면서 조마조마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 배 우에서는《유격대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배는 창파를 가르며 앞으로 씽씽 나갔다. 임당수의 사나운 물'결도 로동당 시대의 붉은 처녀 어로공들 앞에는 끝내 머리를 수그리고야 말았던 것이다.

첫 기망을 했으나 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다. 수온이 례년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틀림 없이 더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였다. 그러자면 분계선에서 0.3 마일도 못 되는 지점까지 나가야했다.

이때 다른 선장들은《여기서도 한물만 더 떠먹으면 될걸 모험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용감한 녀성호 성원들은 적들의 군함이 횡대로 늘어선 코 앞에까지 대담하게 진출하였다. 새벽에는 나가고 밤에는 안으로 들어 오면서 하루에 4~5 톤, 지어는 12 톤까지 잡아 내였다. 그들 역시 겁은 났었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그들은 북을 치고 꽹가리를 울리면서 혁명 가요를 부르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들은 배의 기관부에 고장이 생겨 조수에 밀려 흘러가는 한척의 배를 보았다. 배는 사정없이 적들의 군함 앞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어느 새 이를 발견한 적들의 군함이 이를 덮칠 듯이 량쪽에서 조여들고 있었다.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였다. 주위를 돌아 보아야 자기들 밖에 다른 배라군 없었다.

《동무들 혁명 동지들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웨치며 병숙이는 힘껏 조타를 남쪽으로 돌리고 최대의 속력으로 적의 군함을 맞받아 나갔다.

오직 혁명적 동지애의 한 없이 높은 감정이 그들의 가슴에 용솟음쳐 올랐다. 손'바닥에 땀이 질펀하고 온 몸에 진 땀이 흘렀다. 드디어 그들은 적함의 바로 코 앞에서 그 어선을 따라 잡았다. 힘껏 바'줄을 던졌으나 미치지 못했다. 세번 만에야 드디여 조난선과 련결시켰다. 그리고 놈들이 들으라는 듯이《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높이높이 부르며 기지로 돌아 왔었다.

그들이 기지로 돌아 왔을때 다른 배들이 모두 그들에게 몰려 왔었다. 왁자하는 속에서 녀성호 선원들을 붙안고 돌아가는 조난선 선원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80만 톤 고지에로

류달리 기후가 더운 올봄에 녀성호의 선원들은 례년보다 한 달 앞서 춘기 출어를 시작하였다.《조선 로동당의 딸, 청년 녀성 영웅호》라는 글'발이 배'머리에 크게 씌여져 유난히 눈에 안긴다.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자기 계획을 120% 이상 넘쳐 실행하였다.

그들은 금년에 안강망 어구로 126 톤, 저예망으로 154 톤, 자망, 연승, 줄낚시 등으로 20 톤의 고기를 잡을 것을 결의하고 힘차게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당과 수령 앞에 충직한 붉은 청년 어로공들이 우리의 동서해를 주름잡고 달리는 한 금년도 80 만 톤의 수산물 고지도 어김 없이 점령되리라!

본사 기자 한 희 만

500만 톤 고지로 달리는 청년들

살기 좋고 기름진 땅 황주'벌에는 례년 보다 봄은 더 빨리 다가 오고 있다. 발동 소리도 요란히 포전들을 정리하는 뜨락또르며 중소 농기구들을 장만하느라고 왱가당 거리는 조합의 야장'간, 그야말로 온 마을이 떨쳐 나섰다. 저기 랭상모판 쪽에서도 얼마나 들끓고 있는가!

든든한 랭상모판 울바자를 세우기에 분주히 돌아치는 동무, 보다 좋은 상토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 동무, 손을 기계 같이 놀리면서 랭상모 문짝에 종이를 바르고 있는 동무, 염수선 하는 동무, 그야말로 전투하는 병사들처럼 모두다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벌써 일년 농사의 절반은 끝난 셈으로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들의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영농 준비에서는 수다한 애로와 난관들이 있었다. 그러나 또 그만큼 자랑도 많았다.

지금 포전마다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김이 서려 오르고 있는 산'더미 같이 쌓인 자급 비료만 해도 그러하다.

우리의 첫 전투는 정보당 70 톤씩 시비해야 할 자급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였다. 여기에서 우선 애로로 된 것은 그 많은 량의 예비를 찾는 문제였었다.

타산도 해보고 있을 만한 곳을 짐작해 봤으나 도저히 그 것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비로소 총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전체 민청원들이 한 사람 같이 동원되여 비료 원천을 찾아내는 일에 달라 붙었다. 이렇게 되니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 최두성 동무는 하방다리 근처에서 700 톤의 예비를 찾아 냈으며 또 리 용연 동무는 청년 상점 앞에서 무려 1,000 여 톤의 자급 비료 원천을 찾아 내였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예비들이 나타났다.

이리하여 우리는 살을 에이는 듯한 정월의 추위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지어는 리 종순, 라 영희 동무들은 어름을 까고 물 속에 뛰여 들어 부식토를 파내기까지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걸린 문제는 채취한 자급 비료들을 포전까지 운반하는 문제였다. 여기에는 수 많은 운반 기재가 요구되였다. 그렇다고 작업반에 그만한 운반 기재가 있는 것도 아니였다.

(어찌 애써 생산한 자급 비료를 운반 문제로 그냥 두어둘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애를 쓰고 고심한 끝에 우리 민청원들 속에서는 대담한 발기가 나오게 되였다. 그것은 작업장에 효며져 있는 파철과 용접기를 리용하여 리야까 30 대를 만들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끝내 이 문제도 해결해 냈다.

30 여 대의 리야까는 자급 비료를 그득그득 싣고 렬차처럼 씽씽 달렸다. 민청원들은 더욱 신바람이 났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건만 그들은 달'밤에까지 뛰쳐 나와 일을 해 제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정당 70 톤의 비료도 끝내 보장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너른 원천을 탐구하며 벼'짚을 거름으로 내고 무축 농가를 퇴치하는 등 더 많은 자급 비료를 내여 올해의 영농 작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할 결의에 불타고 있다.

황주군 제안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위원장 김 봉호

조국 기행

대동강 천리'길

김 동 전

(전호에서 계속)

노래처럼 흐르는 인민의 강—대동강은 다시 흘러 대해인양 창창한데 그의 품에 두루섬, 두다니섬, 추자도 등 아름다운 섬들이 련줄련줄 안겨온다.

그 넘어로 멀리 땅 좋은 중화'벌이 하늘에 닿은듯 끝없이 펼쳐졌는데 가없이 트인 물구비를 스치며 우렷하게 봉우리 하나 강'기슭에 솟아 있다.

그것은 만경봉, 삼천만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께서 어린 시절을 같이 하신 만경대이다.

항시 그리웁던 만경대에 다달으니 우리의 감격은 더욱 새로워진다.

어린 시절 수령께서 대동강의 맑은 물을 바라 보시며 굴할 줄 모르는 의지를 길러낸 여기 만경봉에 우거진 소나무 한그루, 깎아 세운듯한 강'기슭의 벼랑돌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무심히 지날 수 없구나.

정녕 저 것이였으리라! 무지개를 잡으려 어린 시절의 수령께서 오르시던 나무는, 불멸의 의지를 다지며 걸으시던 오솔'길은, 이 강반에 흐르는 구슬픈 배'노래를 들으시며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던 나루터는…

어린 시절의 수령의 의지를 더듬음인가! 만경대 혁명 학원 학생들이 만경봉의 소나무 숲을 거닐고 있다.

뒤에는 산이 솟고 앞에는 강이 흐르며 산옆에는 과수원이 둘러 앉고 집집의 마당에는 복숭아꽃이 활짝 핀 마을,

그 마을 한 복판에 수수한 한 채의 농가가 있다. 수령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집인 것이다. 우리들이 태여난 그러한 집, 우리들의 고향 그 어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수한 집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다. 그 집을 보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행복과 궁지가 가슴에 부풀어 오른다.

오직 조국의 광복과 번영을 위하여 바쳐진 수상 동지의 활동, 회고하면 들려 오누나, 백두 설령에 울려 퍼진 혁명의 노래 소리, 보이누나, 30 년 전 백두 밀림에서 조국 광복의 첫 무장 대오를 조직하시던 수령의 젊은 시절의 모습, 멀고 험한 행군의 선두에서 원쑤를 족치며 걸으시는 수령의 모습이…

어찌 그뿐이랴, 미제 야수들을 격멸하는 작전을 계획하시는 그 많은 밤의 수령의 모습이며 폐허 우에 일떠서는 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모습, 들길을 걸으시는 모습이 우러러 보인다.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는 그이, 나라의 어려운 일, 쉬운 일 가리지 않고 인민들과 의논하시는 그이, 온 나라를, 온 인민을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이끄시는 그이, 정말 우리는 김 일성 원수께서 령도 하시는 로동당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사는 보람을 금할 수 없다.

《바로 몇 해전까지만도 수령님의 조부님께서는 저 집에서 손수 농사를 지으시였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감회깊이 나누었다.

영광의 땅 만경대,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 그 만경대의 오른편에 길쭉히 강선'벌이 펼쳐진다. 그 옛날 신선이 하강해 살았다 하여 강선, 왜놈의 때는 최가라는 지주놈이 쥐락펴락했다는 강선, 그러나 오늘의 강선은 약동하고 있다.

어데선가 파르릉파르릉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 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벼락치는 소리란다.》

영식 동무는 능청스런 웃음을 띠우고 대답하는 춘보 아바이를 물끄럼히 올려다 본다. 맑은 날에 벼락 소리가 웬소리냐는듯한 표정이였다.

《저 소리는 강선 제강소 전기로에서 일어나는 아크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야 영식 동무는 까닭을 알아 차렸다. 전기 지식에 능한 그는 이쯤 말해도 벌써 문제를 잘 알아 차렸다.

나는 계속 그에게 지금 저기 강철 직장의 로동자들은 련속 산화법과 자동 투입기를 창안하여 자기들의 로동을 기계화하면서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모두 초과 완수하고 120만 톤 강철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데 저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식 동무는 기중기들이 분주히 하늘을 젛는 건설장을 가리키며 묻기에 그것은 인발강관 직장 건설장이며 이제 오래지 않아 저기서 강관이 뽑아 져 나오게 된다고 한즉 그는 더욱 감탄해 마지 않았다.

나는 강선에 대하여 그에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강선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해방과 함께 조국에 개선하신 김 일성 원수께서는 력사적인 첫 연설을 하신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군중 대회가 있기 며칠 전에 쇠'물을 뽑는 강선의 로동자들을 만나 국사를 상론하시기 위하여 이곳을 찾으시였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전 후 사흘만에 수령님께서 이곳 제강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령님을 모실 한간 방이 없어 저 백양나무 밑에서 로동자들은 그이를 뵈였습니다.

수상 동지께서는 이곳 로동자들의 손을 차례차례 잡아 주시며 조국에는 쇠'물이 많이 요구된다고 빨리 쇠'물을 뽑아 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 정전 후 40 일만에 드디여 여기서 이곳 로동자들은 붉은 쇠'물을 뽑아냈습니다…》

어찌 그뿐이랴!

전후 3 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첫 5 개년 계획의 문턱을 넘어서던 시기, 이 시기는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매우 준엄한 시기였다. 원쑤들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해 나섰고 당 내에서는 반 혁명 반당 종파분자들이 당을 공격해 나섰으며 자금도, 자재도 부족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전체 인민을 새로운 전투에로 부르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열렸고 전원 회의가 끝난 후 수상 동지께서는 또다시 강선에 내려 오시였다.

수상 동지는 나라의 곤난한 형편과 당의 의도도 알려주고 로동자들과 함께 증산과 절약의 예비도 찾으시였다.

이때 강선의 로동자들과 청년들은 나라의 형편이 정녕 그러하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수상님의 뜻을 받들고 궐기한 결과 온갖 보수주의와 공칭 능력을 박차고 6만 톤의 설비에서 12만 톤의 강편을 내는 기적을 내였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는 이 때부터 힘차게 발굽을 뗐으며 천리마 작업반의 봉화도 여기에서 먼저 올랐던 것이다. 수상님께서는 원대한 전망을 구상하시다가도, 나라 일을 타산하시다가도 여기 강선의 강철 기지를 찾으시군 하시였다.

오셔서는 전기로를 하나 하나 돌아보시며 전기로의 성능을 살피시였고 끓는 쇠'물도 바라 보시며 용해공들과 이야기도 나누시였다.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헐하게 할 수 있는가, 수령은 용해공들과 무릎을 맞대고 중요한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며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다.

어찌 생산에서만이랴! 용해공들의 집에도, 합숙에도 그이께서는 찾아 오시군 하시였다.

모든 것이 넉넉한 살림에 무엇이 부족하랴만 그이께서는 용해공들의 집에 불이 잘 드는지, 석탄이 넉넉한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지, 살림 걱정, 집 걱정까지 하여 주신다.

수령의 이러한 극진한 배려에 고무된 강철전사들은 그이의 부름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왜놈의 때는 한명의 기사도 없던 여기에 지금은 수백명의 기사, 기수 집단이 있다. 아니 평범한 로동자—그는 대학생이다. 낮에는 전기로를 다루던 용해공들이 밤에는 대학엘 간다. 이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온 강선이 배우고 있다.

그들은 제손으로 전기로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제손으로 전기로를 운전하여 강철을 생산하고 있다.

120만 톤 강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불꽃이 튀는 강선,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청산리가 있다.

청산리, 국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그이께서 보름'동안이나 내려 오셔서 농민들과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풍년을 마련하신 청산리.

력사적인 수령의 교시가 계신 곳, 그것으로 하여 전국의 모범이 되고 기'발이 된 청산리.

2년 전까지만도 여기에는 빈틈이 많았었다. 일부 관리 일'군들은 수준이 낮아 철저한 계획이 없이 사업을 하는 관계로 농사'일이 한창 바쁜 때에도 로력은 사처에 분산되고 있었으며 공산주의 교양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도 원만하게 관철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다나니 군중들의 적극적인 열성도 더 발휘되지 못하였었다.

생산 관계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여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되였으며 생산력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였으며 대중의 정치적 열성이 더욱 높아진 새로운 환경은 그에 상응하게 새로운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요구하였다. 실로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과 낡은 사업 체계 및 방법 간의 모순, 급격히 변화 발전하는 현실과 일'군들의 사업 수준 간의 모순—이것은 지체 없이 해결되여야 할 성숙된 문제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기본 문제였다.

바로 이 고리를 해결하는 열쇠를 수령께서는 여기 청산리에서 찾아주신 것이다.

수상 동지께서는 15일 간이나 조국의 평범한 이 한 마을을 연구하시고 협동 조합이 통합되여 그 규모가 커진 것을 고려하여 조합의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농사'일에 힘을 집중하며 작업 정량을 바로 규정하고 로력일을 옳게 평가하며,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교시하시였다.

또한 수상 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당'적 분공을 잘 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중들을 움직이도록 하며, 군 당과 군 인민 위원회들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며 그들이 직접 리에 내려가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상 동지께서는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을 통하여 모든 부문에서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견지하고 적용하여야 할 지도적 원칙—청산리 방법을 제시하시였다. 즉 모든 지도 일'군들이 아래에 생산 현장에 일상적으로 내려가 아래 일'군들을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하여 걸린 문제를 풀며 지도 사업에서 일반성과 구체성을 결합시키며 언제나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상론하며 문제를 군중의 리익에 부합되게 푸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로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에 기초한 것이며 1930년 대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당 사업 방법과 군중 공작 방법이 오늘의 현실에 구현되고 풍부화된 것이다.

수상 동지께서 여기 청산리에서 지피신 한 점의 불꽃은 비단 농촌들만이 아니라 공업을 포함한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날부터 당 정권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으며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마사지고 모든 사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전 당에 당'적 사상 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고 간부 대렬과 핵심 진지가 가일층 공고화되였으며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 역할이 더욱 제고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와 사람들의 로동, 사상, 도덕 생활에서 전례 없는 고조를 일으킨 기본 담보로 되였다.

불'길은 전국에 타번졌다. 천리마의 진군은 더 우람차고 도처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탄생되였다.

수상 동지의 청산리 교시가 있은 1960년 가을을 보라!

땅도 그 땅, 사람도 그 사람이언만 1960년의 가을은 그전의 그것들 보다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380만 3천 톤의 대풍을 이루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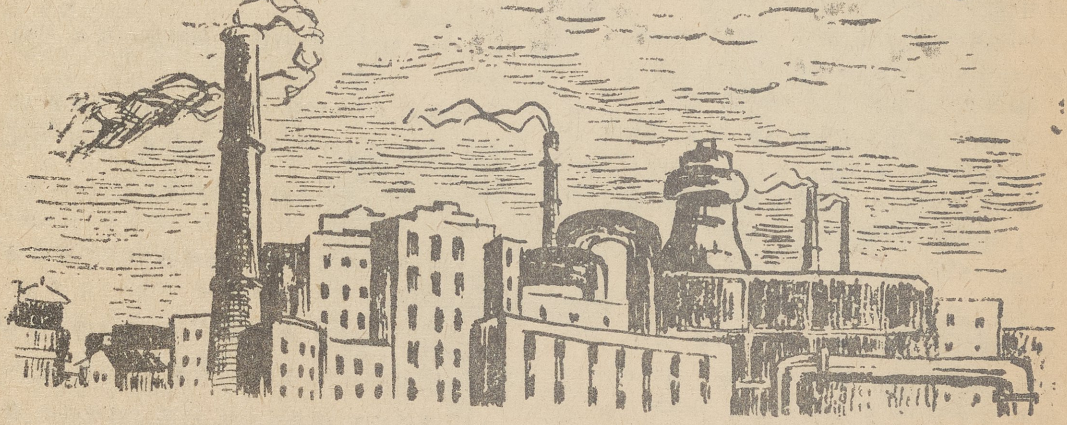
1961년의 가을은 이보다 더욱 놀라운 수확고를 냈으니 례년에 없는 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83만 톤이란 기적적인 수확을 거두었으며 금년에 또다시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총 진군하고 있다.

비단 농촌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와 같이 대고조와 앙양이 일어났었다.

(다음 호에 계속)

과학 환상 소설

《무쇠없는 공장》



(전호에서 계속)

김 동 섭

비 누' 곽

현이는 다섯 시 반 고동에 잠을 깼다. 머리가 좀 무거웠다. 하긴 눈을 잠시 부치는 사이에도 그 이상한 자동차를 몇번이나 보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젠 어제'밤에 있은 일 모두가 꿈 같기만 하였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세수'물을 떠 놓고 세수 대야를 보니까 어제'밤 생각이 또 치밀어 올라 왔다.

세수를 하니까 기분이 퍽 상쾌해졌다.

그런데 돌아 서려는 순간 무엇인지 달그락하는 소리가 나더니 발 밑에 짓밟히우는 것이 있었다.

얼른 비켜 보니 비누'곽이였다. 수건 섶에 걸려 굴러 떨어진 것이였다. 현이는 얼른 집어 들어 보았다. 비누'곽은 깨지지도 않고 찌그러지지도 않았었다.

순간 그는 이 비누'곽이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생각키웠다.

《음, 혹씨 그 자동차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만약 그 자동차가 이런 합성 재료로 되여 있다면? 그러면 차체가 투명할 것이 아닌가! 그 속의 모든 부속품들도 모두 울긋불긋할 것이구…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서 네 사람이 들 수도 있지 않는가! 맞었다, 맞었어!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 합성 재료로 만들어진 자동차일꺼다.》

현이는 작난'감을 쥔 어린애 처럼 비누곽을 쳐들고 코'노래를 부르면서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로 빙글빙글 두어 바퀴 그 자리에서 맴돌았다.

(합성 재료로써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기계 부속품들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만일 철대신으로 이런 재료들로써 일부 기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복잡한 기계 생산 공정이 덜어지고 철과 기계를 더 얻어 내는 셈이 아닌가! 철은 철대로 더 유효하게 쓰고! 기계는 쏟아져 나오고, 멋 있다, 멋 있어!)

현이는 그 자리에서 두어 번 껑충 껑충 뛰였다.

《아니 얘, 얘야, 저 애가 요즘 너무 공부를 하더니…》 부엌에서 내다보시던 어머니가 어이 없다는 얼굴로 말씀하는 것이였고 그 등뒤에 선 누이 동생이 눈만 빠끔 내밀고 유심히 살피고 있였다.

《아녜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현이는 하하 웃으면서 달음질쳐 그길로 숙이의 집에 갔다.

《비밀은 풀렸소! 철과 기계를 더 얻어 냈소》 현이는 숙이를 만나자 마자 소리쳤다.

《뭐요?》 숙이는 눈이 둥굴해 졌다.

《나는 어제'밤 그 자동차가 합성 재료로 만든 것이였다고 생각하오.》

현이는 《비누'과 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 하였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몇가지 의문이 풀리는군요. 우선 가벼울테니까 네 사람이 들 수 있을 것이고 바다 물 속으로 거침 없이 뛰여 들어가도 배 처럼 뜰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롱한 그 빛갈도 그럴듯 하고》

《그래 우리들보다 벌써 선구자들이 있어, 그들은 벌써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으니…》 현이는 부끄러운듯이 말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풀리지 않는군요. 글쎄 바다 속까지 풍덩 뛰여 드는 그 대단한 자동차가 어째서 그 도랑 하나를 건너지 못해서 사람들이 들고 건넜을까요?》 숙이는 고개를 갸웃등 거리며 묻는 것이였다.

《글쎄? 아마도 스프링을 아끼느라구 그랬겠지》 현이는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제 생각 만을 계속 늘어 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이에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철로만 기계를 만들고 있는 것일가? 무엇 때문에 합성 재료로도 기계를 못만든단 말인가?)

점심 때도 저녁 때도 현이는 그저 생각에 골몰하였다.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잡한 생산 공정을 꼭 바꾸고 철과 기계를 더 얻어 낼 테다. 자동차도 만들었는데 다른 기계라구 못 만들리가 있겠나, 어서 그 선구자들을 만나야 겠다!)

현이는 이렇게 속 마음으로 다지면서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장 대학에서

그날 저녁 공장 대학 문을 들어 서기가 바쁘게 현이는 금속 재료 강좌에 찾아 갔다.

마침 정 선생이 계셨다. 그 분은 대학을 이미 수년 전에 마치고 공장 야금부에서 기사로 일하고 계셨다.

현이는 찾아 온 사연을 낱낱이 이야기 하였다.

담배를 피여 물고 찬찬히 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 선생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군 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이야기가 나올 때는 상을 약

간 찌프리는 것이였다.



이야기를 끝마친 현이는 궁금한 마음으로 정 선생의 안색을 살펴 보고 있었다.

《훌륭한 생각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대학 시절이 회상됩니다.》

정 선생은 띠엄 띠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우리 동창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한 동무가 있었소. 그래서 그 동무의 발기에 의해서 그 문제가 널리 토론 되였었소. 몇 동무가 구체적으로 연구와 실험을 해서 발표회도 가졌었소》

정 선생은 잠시 회상 하는 듯이 말을 끊었다. 벌써 여기저기 희끗 희끗한 머리가 섞인 선생님의 모습은 경험 있고 지식이 풍부한 기사의 위엄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다.

《연구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고 기억되오.

우선 합성 재료란 아주 훌륭하고 전망이 큰 것이며 벌써 그 것이 철과 유색 금속을 대신하여 널리 쓰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요.

합성 재료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오. 우선 기계 부속품들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스트마스의 종류만 해도 벌써 수십 종이 발견되였고 그것들은 모두 제가끔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공통적인 성질을 따져 본다면

첫째로 되는 우'점은 합성 재료가 철과는 달리 녹이 쓸지 않는다는 점이요.

많은 기계 부속품들, 특히 철관들은 몇해만 지나면 녹 쓸어서 못쓰게 되지요. 더구나 화학 공업이 발전된 오늘날 이 문제는 아주 크게 제기되여 있지요.

그런데 녹이 쓸지 않는 강철 합금은 아주 값도 비싸고 귀하지요. 그러니 합성 재료를 쓰게 되면 얼마나 좋겠소.》

듣고 있던 현이도 흐뭇해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였다.

정 선생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두번째 우'점은 합성 재료가 높은 전기 절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인민 경제의 자동화를 위해서 더 많은 전기 기계, 전자 기구들을 생산하자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요.

세번째로는 어떤 합성 재료는 마찰 계수가 아주 작고 윤활하지 않아도 훌륭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베아링으로써 둘도 없는 우수한 재료이요.

게다가 합성 재료는 가공하기도 쉽고 모양도 곱고 무게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가벼웁고 아주 편리한 것 만은 틀림이 없소. 특히 이것은 귀중한 철재 절약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요.》

정 선생은 눈 앞에 환히 내다 보인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였다.

현이의 가슴은 점점 높이 뛰여 올랐다.

《그런데 지금 곧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몇가지 리유가 있소.》

정 선생은 유감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말을 바꾸었다.

현이는 정신을 바싹 차렸다.

《합성 재료는 아직 일련의 결함을 가지고

있지요.

우선 약점은 열에 잘 못견디는 것이요. 그런데 기계의 많은 부속품들은 높은 열에 견디여야만 되지요.

하긴 요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어떤 종류의 합성 재료는 2,500도나 되는 높은 열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하던데 아직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오, 이것은 앞으로 연구되여 해결해야 할 문제요.

또한 합성 재료는 높은 압력에 견디지 못할뿐만 아니라 세기는 강철과 비슷하지만 탄성이 없기 때문에 가공 과정과 작업 과정에 곤난한 점이 많은 것이요. 이것은 강철을 대신하여 쓰일 수 없는 중요 원인의 하나이요.》

정 선생은 현이의 안색을 살폈다.

사실 현이는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듣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결함은 충격에 약하다는 것이요. 자동차고, 기중기고, 타빙이고 모든 기계들 중에서 일하는 과정에 충격을 받거나 약하게라도 진동을 이르키지 않는 기계는 거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합성 재료로 만든 부속품은 여기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합성 재료에 대한 연구 사업을 더 해야 하오.》

《그럼 어제'밤의 그 자동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이는 머리를 들어 물어보았다.

정 선생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의심스런 눈초리로 되묻는 것이였다.

《동무들이 분명히 보았소?》

《네, 분명히 보았습니다.》 현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정 선생은 또 말이 없었다. 새로 피여문 담배 한대가 거의 다 탈 무렵에야 정 선생은 다시 말을 시작하였다.

현이에겐 그 사이가 퍼그나 오랜 것처럼 생각 되였다.

《난 암만해두 의심스럽소. 아직까지 연구된 합성 재료들 만으로써는 자동차의 일부 부속품은 모르지만 자동차를 완전히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소. 우선 어떻게 충격에 견디겠는지 모를일이요.

또 만일 그런 성능 높은 새로운 합성 재료가 연구되였다면 이미 소개되였을 터이고 퍽 유명한 사건으로 되였을 것인데 난 도무지 들은 기억이 없소.

그래서 암만해두 동무들이 잘못 보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너무 생각 하다가…》 정 선생은 말 끝을 흐리였다.

교실에 도라 온 후에도 현이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모두가 착각이란 말이지, 그 이상한 자동차! 우리가 길'가에 선 채로 허망한 꿈을 꾸었단 말이지…

아니다. 꿈이라면 내가 평시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없다. 더구나 둘이 함께 보았는데?)

현이는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가 않았다.

(미래에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될 터인데 지금은 될 수 없다지.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공부가 도무지 되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 간 후에도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다가야 현이는 제 정신이 들어서 밖으로 나왔다. 분간할 수 없이 짙은 안개가 누리를 덮고 있었다. 바깥 공기는 퍽 축축했다.

교문을 썩 나서려는데 갈래머리 처녀가 앞에 나타났다. 숙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되였어요?》 숙이는 눈치를 살피면서 다정하게 묻는 것이였다.

《뭐 그러…》 현이는 자초 지종을 간단히 이야기하였다.

《그래 오늘 아침만해두 당장 공장을 새로 지을듯 하더니 그 사이에 그렇게 락심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숙이가 나즈막히 말하였다.

《아니 내가 항복을 하다니…》

현이는 헛 기운을 내여 말하였다.

《항복아니구 뭐예요. 벌써 락심해 가지구… 우리는 분명히 두 눈으로 보지 않었어요.》

숙이는 낮고도 힘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두 사람은 여늬 때처럼 그 고개를 넘었다. 서로 한마디도 더는 주고 받지 않았다. 은빛 가로등만이 이 짙은 안개를 헤치고 실머리를 찾아 내려는 듯이 빛을 뿌리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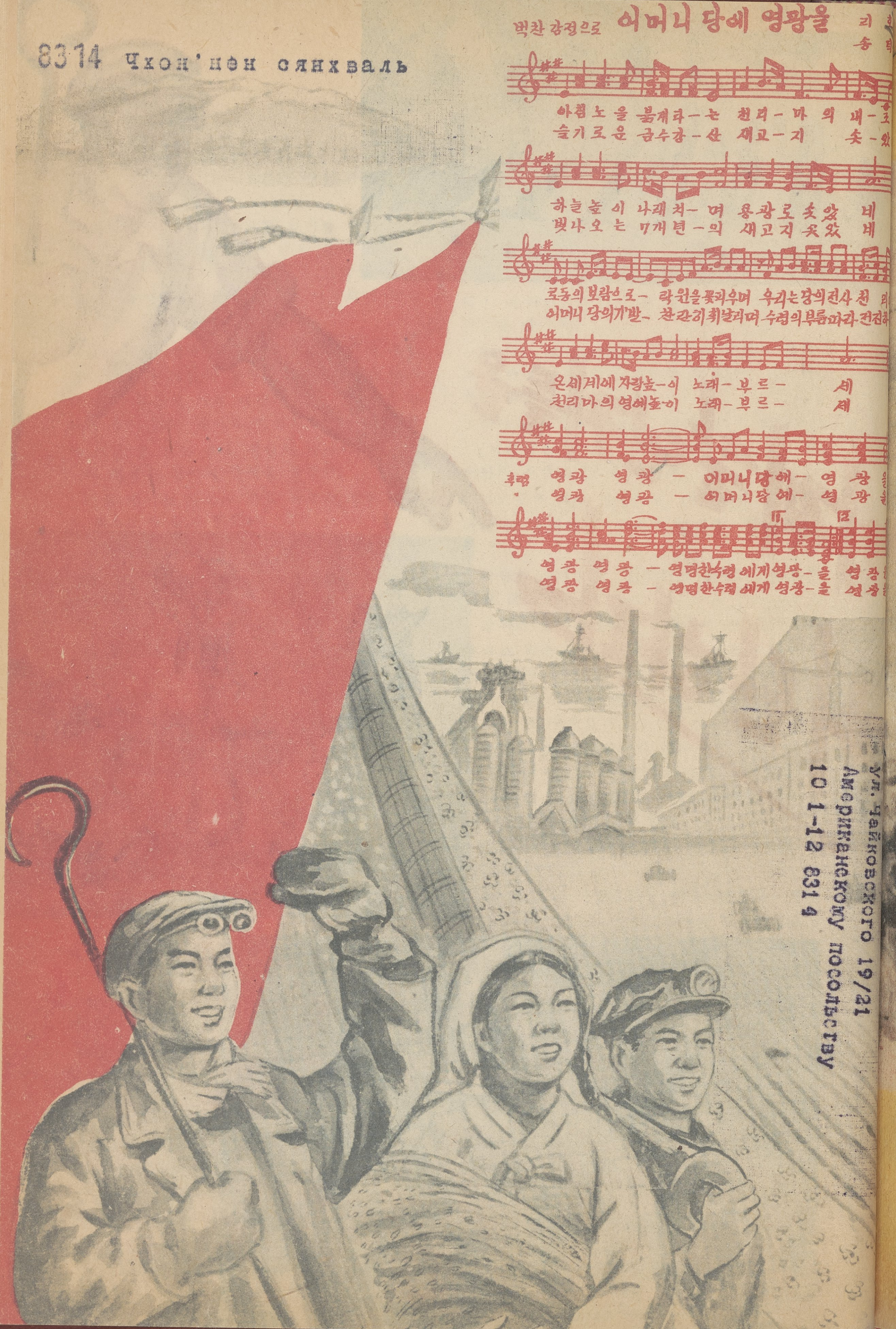


미제 살인귀들을
처단하라





8314 Чхон'нён сянхваль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314